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 인 철 교수지도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시험 내용과  
시험방식 분석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여 효 숙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시험 내용과  
시험방식 분석

최 인 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여 효 숙

# 인 준 서

여효숙의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본 논문에서는 외고 입시 평가 방식을 분석하고 내용타당도를 재고하였으며, 외고 입시 평가가 앞으로 보다 타당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5개 외국어 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2003~2005 학년도) 입학시험 기출 문제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먼저 Bachman & Palmer의 의사소통 능력의 네 가지 하위 범주별로 외고 입시 평가의 문항 분포를 분석한 결과, 텍스트 구성 능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능력 평가 문항을 더 큰 비중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Bachman(1990)의 Test Method Facets(TMF) 시험 방식 양상 및 최인철의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개발 모델'에 근거해 외고 입학시험의 각 영역별 시험 구성과 비중 및 방식을 분석하고 내용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제시 방식, 청취 횟수, 1지문 1문항 원칙(One passage one item), 청해 지문 내용, 다양한 시험방식, 듣기형 독해의 문항수 및 수험시간, 독해지문 내용, 시험유형별 문항제시, 시험방식, 지시문 및 선택지의 언어, 선택지 수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시험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시험방식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또한 듣기유형별 문항 비율 및 청해 속도, 미시적 청해 능력과 거시적 청해 능력 비율을 분석하였다. 듣기 유형별 문항 비율은 일반 듣기 유형이 59.4%로 가장 많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외고 입시 평가의 평균 발화 속도는 157wpm로 측정되었으며,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고 입시 평가가 제대로 된 의사소통 능력 측정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원어민의 실제 말하기 속도와 가까운 발화 속도로 평가하는 속도화 시험(Speeded Test)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고 입시 평가 문항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 목 차

<b>I. 서론</b>	<b>1</b>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3
1.3. 연구의 제한점	4
<b>II. 이론적 배경</b>	<b>6</b>
2.1. 언어 평가의 개념 및 목적	6
2.2. 언어 평가 내용	9
2.2. 언어 평가의 구비요건	9
2.3. 언어 평가의 종류	11
2.3.1. 목적에 따른 분류	11
2.3.2. 평가 방법에 따른 분류	12
2.4. 의사소통능력 평가	13
2.4.1. 의사소통능력의 개념	13
2.4.2.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	14
2.4.3. 의사소통능력 평가	18
2.5. 시험 방식 양상(Test Method Facets)	18
<b>III. 특목고에 대한 배경</b>	<b>21</b>
3.1. 특목고의 교육목표	21
3.2. 외국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21
3.3. 특목고의 교수 학습 방법	23
<b>IV. 외교 입학시험 분석 및 내용 타당도</b>	<b>25</b>
4.1. 외교 입학시험의 성격	25
4.2. Bachman & Palmer의 의사소통 능력 모형에 의한 분석	27
4.3. Test Method Facets(TMf)시험 방식 양상에 근거한 타당도 분석	30
4.3.1. 영역별 시험 구성, 비중 및 방식	30
(1) 청해 및 듣기형 독해	31

- 문항수 및 수험시간 .....	31
- 음성언어 vs. 문자언어 vs. 이미지 .....	31
- 청취 횟수 .....	32
- 1지문 1문항 원칙(One passage one item) .....	33
- 청해 지문 내용 .....	33
- 청해 지문 길이 .....	34
- 다양한 시험방식 .....	36
(2) 듣기형 독해 .....	36
- 문항수 및 수험시간 .....	36
- 독해지문 내용 및 1지문 1문항 원칙 .....	37
- 시험유형별 문항제시 .....	40
- 시험방식 .....	40
4.3.2. 선택지 .....	41
- 지시문 및 선택지의 언어 .....	41
- 선택지 수 .....	44
4.4. 듣기 유형별 문항 비율 분석 .....	44
4.5. 문제 형식(Format) 분석 .....	46
4.5.1.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 유형 문제 형식(Format) .....	46
4.5.2. 듣기형 독해 유형 문제 형식(Format) .....	48
4.6. 청해 속도 분석 -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 문제 속도 분석 .....	50
4.7. 미시적 청해 능력과 거시적 청해 능력 .....	53
(Micro-Listening vs. Macro-Listening)	
<b>V. 외교 입시 평가 시험 유형 분석 .....</b>	<b>56</b>
5.1.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 유형 .....	60
5.2. 그림 제시형 .....	75
5.3.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 .....	81
<b>VI. 결론 .....</b>	<b>86</b>
<b>VII. 외교 입시 평가의 개선을 위한 제언 .....</b>	<b>90</b>
참고문헌 .....	92
Abstract .....	95

[부록] 각 학교별 외고 입시 평가 기출 문제 (2003~2005학년도)

## 표 목 차

<표-1> Carroll의 언어 능력 요소 .....	7
<표-2>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 .....	15
<표-3> 외국어고 전문교과목 및 이수단위 .....	21
<표-4> Bachman & Palmer의 의사소통 능력 모형에 의한 분석 .....	29
<표-5>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듣기형 독해 문제 비율 분석 .....	45
<표-6> 모국어 화자의 일반 발화 속도 .....	50
<표-7> 외고 입시 평가의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 속도 .....	52
<표-8> 미시적 청해 능력과 거시적 청해 능력 평가 문항 비율 분석 .....	55
<표-9> 외고 입시 평가 시험 유형 분석표(2003~2005학년도) .....	57
<표-10> 외고 입시 평가 시험 유형별 문항 비율 (2003~2005학년도) .....	59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 7월 30일 교육개혁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영재교육이 다시 부각되자 종합영재교육방안에 관한 기본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추진하여 과학영재교육방안, 외국어교육강화방안,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계획, 대학부설예능교실 설치안, 예체능교육진흥방안, 체육특기자 교육의 정상화방안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문교부에서는 1981년 3월부터 2개년 계획으로 영재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7개교를 지정·운영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여 영재교육의 세부계획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그 영역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외국어과정 운영, 과학과정 운영, 교과별·학력별 반편성 운영, 영재학급 운영 등 네 가지였다.

1982년 6월부터 12월까지 영재교육 종합 방안 추진 계획이 구체화된 바, 이 계획은 그 때까지 이루어진 기초연구, 해외 영재교육의 동향, 연구학교의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 3월 '경기도 과학관 부설 과학고등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재교육기관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특히 어학능력을 지닌 우수학생 양성이라는 목적에 바탕을 둔 외국어 고등학교는 2005년도 현재 22개교이며, 신설 예정인 곳과 설립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곳이 추가로 더 있다.

“외국어·과학분야 인재 육성”이라는 목적을 띤 특수목적 고등학교(이하, 특목고)는 교과 편성 자율권까지 주어졌으나, 명문대, 특히 특목고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의대·법대·경영대를 가기 위한 관문이라는 인식이 깔리게 되었다. 실제 2003년에는 서울지역 외국어고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포항공대·카이스트 등에 입학했다. 이런 진학률이 전국 초·중학교에 특목고 진학 열풍을 몰고 와 사교육비 증가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목고 입학, 교육과정, 대학진학 등 입체적 개선책을 내놓아 ‘입시목적고’로 인식되는 특목고의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그 가운데도 특목고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입시학원 주최로 열린 2006학년도 특목고 구술면접 설명회에 1천500여명이 참가, 특목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참석자의 절반 가까이 됐으며, 자리가 부족해 통로 계단에 앉아 설명을 듣는 학부모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1) 2008학년도 새로운 대입 시부터 비중이 강화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에 특목고 출신 수험생이 유리하다는 입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에 따라 중3 학생이 자연스레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2)

"5학년 때부터 해야지, 6학년이면 이미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위정숙(41.서울 면목동)씨는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다. 외국어고 입시 준비는 중학교 때나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다. "학교 분위기를 생각하면 외고가 매력 있는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은 없다. 입시 전문가들은 외고 입학에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3)

실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 입학을 목표로 영어 공부를 시키는 학부모와 학원이 다수 있으며, 특목고에 많은 수의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시대회를 비롯해 여러 실기 평가를 준비하는 데 학기중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중학교가 있을 정도이다. 이렇듯 특목고 입학시험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으며, 그 열기 또한 여전하다. 이러한 양상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시험은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동기가 될 정도이다.

서울지역 외고가 치르는 영어 듣기평가는 그래픽을 활용하거나 토익·토플식 장문 듣기 유형의 문제가 늘어나면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외고 합격에 가장 큰 변수인 구술면접에서는 수능 수준의 영어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가 나온다. "이에 대비하려면 3, 4학년부터는 학습지 위주의 쉽고 단순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학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선행학습을 통해 어휘력을 충분히 쌓고, 지필고사 형태의 듣기평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에서 알 수 있듯이 외고 입시 자체가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

1)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2) 세계일보 2005. 9/25

3) 중앙일보. 한애란

다. 제대로 된 영어 학습 방법을 위해서라도 타당도 높은 시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외고 입학시험은 장차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수험자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어떤 시험보다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검사의 질이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에서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영어 평가와 관련된 논문으로, 중학교 정기고사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과 관련된 논문은 다수 있었으나, 특목고 특히, 외고 입시와 관련된 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외고 입시에 대한 관심도와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데 들이는 경제적·물리적 자원,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갈증에 비해 본 입시와 관련된 정확한 지침이나 평가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상태이다. 기존에 출간된 상업용 교재가 다수 있긴 하지만 그 분석이 미흡하며 학원 관계자들 또한 외고 입시 평가의 수준을 수능에 준하는 또는 수능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정도라고 기술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시험의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외고 입시의 평가목적에 맞는 타당한 평가인가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에 따라 외고 입시 방식을 분석하고 내용타당도를 재고하여 보다 타당한 평가가 되기 위한 앞으로의 외고 입시 평가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언어 평가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외국어 고등학교 영

어 교육의 목적과 특징을 알아본 후 각 학교의 기출 시험 문제를 분석한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언어 평가의 목적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의사소통능력 평가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알아본다. 또한 타당한 시험의 구비 조건 및 시험 방식 양상에 대해서도 기술할 것이다.

분석 자료로 전국에 있는 모든 외국어 고등학교의 기출 시험지를 분석하는 것은 관련 자료의 확보 곤란으로 힘든 일이므로, 서울 경기 지역 5개 외국어 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2003~2005학년도) 입학시험 기출 문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 이론 중 잘 알려진 Bachman & Palmer의 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CLA) 모형에 근거해 의사소통 능력의 네 가지 하위 범주인 문법적 능력, 텍스트 구성 능력, 기능적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별로 문항 분포를 분석하여 외고 입학시험 문항이 의사소통 능력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둘째, Bachman(1990)의 Test Method Facets(TMF) 시험 방식 양상 및 최인철의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개발 모델'에 근거해 외고 입시 평가의 각 영역별 시험 구성과 비중 및 방식을 분석하고 내용 타당도를 살펴본다.

셋째, 외고 입시 평가 문항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파악한다.

### 1.3. 연구의 제한점

외고 입시 평가는 학교별 자체 출제 방식이다. 따라서 전국의 여러 외고 입학시험 방식과 시험 환경이 각기 상이하다는 점과, 전국의 여러 외고 중 5개 학교 기출 문제에만 국한된 분석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일반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인 문항난이도, 문항변별도, 신뢰도 등이 이루어지

지 않아, 종합적인 분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 기출 문제의 출제 주체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과 문항 개선 방안에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연구의 제한점이다. 앞으로 보다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한 후속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언어 평가의 개념 및 목적

평가란 주어진 분야에 대한 개인의 능력이나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또한 타 학문 분야의 평가에서는 측정 대상은 그 분야의 능력이고, 측정의 수단은 언어로서 측정의 대상과 수단이 상이하나, 언어테스팅에서는 측정 대상도 언어이고, 그 수단도 언어라는 점에서, 즉 측정 대상과 수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언어테스팅은 독자적인 학문 분야를 이루고 있다(최인철 1991).

Linn & Gronlund(2000:31)는 평가(assessment), 시험(test), 측정(measurement)의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평가는 학습과정과 관련하여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되는 관찰, 수행, 지필평가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시험은 평가의 하나로서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조건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실시되는 일련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며, 측정은 시험 결과에 규칙에 따른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용어의 사용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라는 용어로 통칭하기로 한다.

Robert Lado(1964:22)에 따르면 외국어 평가 이론은 언어학적 이해와 외국어 학습의 습관 형성에 관한 관찰에 기초하고 있으며 언어란 의사소통 형성의 습관적인 체계라고 본다. 이러한 습관은 전달자로 하여금 그가 전달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에 대한 의식적인 관심을 전달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습관에는 형태, 의미, 문장이나 절, 구, 형태소, 음소라 불리는 여러 구조의 분류도 포함된다.

영어 학습에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많은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평가되며, 평가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요소의 선정과 방법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Rivers(1969:346)는 많은 언어 학습의 측면들이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평가를 위한 자료의 선택과 이 자료들이 평가될 방법이 평가의 목적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arroll에 의하면 평가는 단지 평가 자체의 유형이나 평가의 유용성에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평가는 학습자에게 비효율적인 언어 훈련을 하게 유도함으로써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Carroll은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언어 능력 요소를 언어 기능(Language Skills)과 언어 구성 요소(Components)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965:316).

**<표-1 Carroll의 언어 능력 요소>**

Skill	Language Aspect			
	Phonology or Orthography	Morphology	Syntax	Lexicon
Auditory Comprehension				
Oral Production				
Reading				
Writing				

이 표에 따르면 언어 능력 측정은 각각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분리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 모형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은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Context)을 학습자가 인식하고 학습자가 그 속에서 인식하고 이해한 것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평가의 목적을 설정하고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각의 평가에 적절한 내용이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박경신 1996).

즉, 언어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탁월한 외국어 구사 능력 계발"이라는 교육 목표를 지닌 외국어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은 전반적인 외국어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Valette(1967)는 언어시험의 목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언어시험은 1) 교과과정의 목표를 정하고, 2)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고취

시키며, 3) 수업성취도를 측정한다. 즉, 언어평가는 그 성격에 따라 ‘언어교육의 방향과 목표’ 등의 교과 과정을 결정하고, 학생들은 평가결과가 주는 자극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교사는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학생들이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교사는 자기가 설정한 수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Harris(1960:2-6)는 외국어로서의 영어평가의 주요한 목표를 수업계획에 대한 준비 정도의 결정, 개인의 적절한 언어 수업교실 배치 및 분류, 각 개인의 특정 장단점을 진단, 학업에 대한 적성 측정, 학습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성취정도 측정, 그리고 수업효과 측정 등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

- 1) To determine readiness for instructional programs.
- 2) To classify or place individuals in appropriate language classes.
- 3) To diagnose the individual's for specific strength and weaknesses.
- 4) To measure aptitude for learning.
- 5) To measure the extent of student achievement of the instructional goals.
- 6)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instructions.

위의 항목 중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시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즉 학습에 대한 적성 정도와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기준지향평가(Norm-referenced test)와 준거지향평가(Criterion-referenced test)로 구분된다. 기준지향평가는 흔히 상대평가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어떤 학습자의 능력을 다른 학습자의 수행 능력과 비교해 보는 검사이다. 학습자 또는 피검사자 집단의 평균을 알아 백분율이나 백분 분포상의 수준을 알아보는 검사인 기말고사나 표준검사 등이 기준지향평가에 속한다. 그러나 절대 평가로 널리 이해되어 왔던 준거지향평가는 미리 결정된 목표나 기준에 학습자가 도달 또는 충족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이므로 합격, 불합격 또는 도달, 미달을 판정하는 데 사용된다.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시험은 시험의 선발 기능적 성격상 단순히 교육목표에 대한 그 동안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외고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기준지향평가(Norm-referenced

test)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2.2. 언어 평가 내용

Lado(1957:245)는 외국어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t was agreed that in the first place the native and foreign language system should be compared in order to prepare a list of the learning problems which must be tested. This comparison would yield lists of pronunciation problems, grammatical structure problems, vocabulary problems, and problems of socio-cultural meanings related to language. Test could then be prepared to measure the degree of mastery of those problems.

즉, 모국어와 외국어를 대조 분석하여, 이 비교에 따라 발음상의 문제, 문법상의 구조문제, 어휘의 문제, 언어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문제의 목록을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습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문항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음, 구문, 어휘, 문화 등과 같은 언어 요소는 각기 단독으로 평가할 수 있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병행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할 수 있다.

## 2.3. 언어 평가의 구비요건

Harris(1969:13)는 모든 좋은 평가란 신뢰도(Reliability), 타당도(Validity), 그리고 실행가능성(Practicality)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Bachman(1996)은 시험의 유용성(Test Usefulness)이라는 개념을 평가의 중요한 구비 요건이자 언어 평가의 특질로 간주한다. 즉, 언어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그 시험의 유용성(Test Usefulness)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여섯 개의 시험 속성인 신뢰도(Reliability), 타당도(Validity), 평가의 진정성(Authenticity), 수험자 반응과 평가의 상호 작용성(Interactiveness), 평가의 영향

(Impact), 실행가능성(Practicality)은 모두 시험의 유용성에 기여하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이런 각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성은 시험상황마다 다르다. 다시 말해, 좋은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여섯 가지 시험 속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Bachman은 'Test Usefulnes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est usefulness, consisting of several qualities (reliability, construct validity, authenticity, interactiveness, impact, practicality), is an overriding consideration for quality control throughout the process of designing, developing and using a particular language test (Bachman 1996, 박경신 1996: 8 재인용).

타당도(Validity)란 측정하고자 계획한 것을 어느 정도 측정하느냐를 의미한다. 즉, 평가의 항목이나 내용이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일치하며 그 내용을 실제로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문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문법을 측정해야지 이를 통해 어휘나 발음을 측정하면 평가의 타당성이 없어진다. 타당도는 크게 테스트의 내용만을 검증하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기준참조타당도(Criterion-referenced Validity),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등으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의 검증은 한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타당하게 측정하는가를 조사하는 타당도 검증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도의 개념상 가장 핵심적인 검증 과정이다. 따라서 내용타당도와 기준참조타당도 검증은 모두 구인타당도의 검증을 위한 보조 검증 과정이라 볼 수 있다(최인철 1993).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의 일관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번 평가를 하는 경우에 측정자에 관계없이 다음 평가에서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대상에 다시 평가를 해도 일관성 있게 얻어지는 정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평가의 타당도 역시 만족시킬 수 있게 됨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는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

실행가능성(Practicability)은 채점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하며 시간과 경비도 적게 드는 경제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Brown 1987). 영어의 유창성을 측정하려면 영어 인터뷰나 구술시험이 가장 타당도는 높겠지만 단 한번의 시험으로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채점자의 신뢰도의 측면에 문제가 있고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볼 때 실행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2.3. 언어 평가의 종류

언어 평가의 유형은 크게 목적에 따른 분류와 방법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 2.3.1. 목적에 따른 분류

평가의 목적에 따라 크게 성취도 평가,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Weeden 2002:19) 등 네 가지로 구분하거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연계시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구분하기도 한다(박도순 2001). 이 외에도 평가의 목적에 따라 배치평가, 선발평가, 능숙도 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있다.

능숙도 평가(Proficiency Test)는 일반적으로 실제 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를 위해 평가 상황에서도 실제 상황에 있는, 혹은 실제 상황에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언어 사용 과제를 부과한다. 즉, 교실에서 무엇을 학습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 능력을 세분하여 기술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김덕기 1996). 대표적인 예로는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과 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등이 있다.

### 2.3.2. 평가 방법에 따른 분류

평가는 방법에 따라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평가, 분리식 평가와 통합식 평가로 구분한다. 즉,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언어적 성분 중 어느 요소를 측정할 것인지에 따라 분리식 평가(Discrete-Point Test)와 통합식 평가(Integrative-Point Test)로 분류된다. 즉 언어의 특정한 요소만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와 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의 특정 요소만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평가를 분리식 평가라 하고 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평가를 통합적 평가라 한다(박경신 1996).

다시 말해서 분리식 평가는 한 번에 한 가지 사항만을 측정하는 평가로 언어 기능의 분리 기술을 주장하는 언어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음소(Phonemes), 억양(Intonation Patterns), 어휘(Vocabulary Items), 문법(Structural Patterns) 등의 유형이 있다(Valette 1977).

반면 통합식 평가는 언어를 요소별로 구분하여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분리식 평가와는 달리, 학습자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통합식 평가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규칙 빈칸 채우기 시험(Cloze Test), 받아쓰기 시험(Dictation Test), 듣기 평가(Listening Comprehension), 독해 시험(Reading Comprehension) 등이 있다.

또한 평가는 시간적인 제약을 두고 수험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역량시험(Power Test)과 속도시험(Speed Test)으로 분류된다. 외국어 시험에서 수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려면 역량시험(Power Test)보다는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속도시험(Speed Test)의 요소가 강조된다(최인철 1991).

외고 입학시험은 시험 목적에 따르면 선발 평가, 능숙도 평가의 성격을 가지며 평가 방법에 따르면 학습자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통합식 평가인 동시에 속도시험의 성격을 가진다.

## 2.4. 의사소통 능력 평가

### 2.4.1.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근래 영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어교수 및 학습을 실시하고, 또한 그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실행하려면, 우선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Austin(1962)은 의사소통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되는 발화 행위(Speech Act)라고 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사회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언어를 의사소통 중심으로 보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Halliday(1978)는 의사소통이란 언어 사용자 사이에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의사소통이란 언어를 통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의미이다(임백규 2004).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회언어학자 Hymes는 Chomsky가 제시한 능력(Competence)의 개념을 확장하여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하였다. Hymes는 언어 자체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합쳐서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Douglas 2000).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로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류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Canale과 Swain(1980)은 Hymes(1979)의 의사소통 능력의 네 가지 범주를 근거로 해서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개념을 네 가지 즉, 문법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으로 나누게 되었다.

Bachman은 의사소통 능력을 다음과 같이 총괄적으로 정의한다(2001:84).

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CLA) can be described as consisting of both knowledge, or competence, and the capacity for implementing, or executing that competence in appropriate, contextualized communicative language use.

즉, 의사소통 언어능력이란 지식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적 언어사용에서 그 지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주로 평가하며, 외고 입시 평가의 주된 목표 또한 의사소통 능력 평가이므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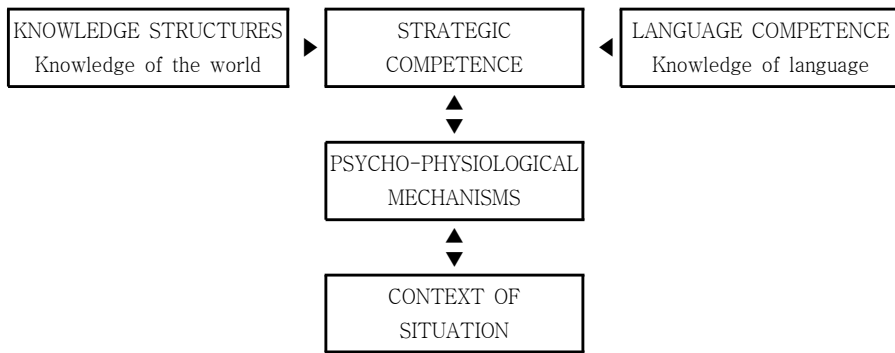
#### 2.4.2.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

언어능력 평가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평가의 핵심이며, 이러한 규정 없이는 타당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 언어 평가의 초기에는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관찰한 결과, 언어 능력은 여러 가지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이완기 2003:66).

Harris(1969:11)는 언어 능력이 언어 기능(Language Skills)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언어 기능은 다시 하위요소들인 음성 및 문자에 대한 지식(Phonology/ Orthography), 언어구조에 대한 지식(Structure), 어휘 지식(Vocabulary), 이들 지식의 사용상의 유창성(Rate and General Fluency)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언어 기능은 모두 16개의 하위 요소로 세분화되고, 이러한 16개의 하위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각각에 중점을 두어 가르치거나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Carroll(1968)은 위에서 언급한 언어의 여러 가지 양상 즉, “16개의 하위 언어 요소는 어떤 근원적인 요인(Underlying Competence) 하나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근원적 요인이 16개 하위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완기 2003:67)이라고 생각하였다.

Hymes 이후로 여러 연구자들이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을 재구성하였지만,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것이 Bachman의 모형이다(Douglas 2000). Bachman(2001)은 의사소통 능력이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과, 그 언어 능력을 적절한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신경 조직적, 심리적 과정인 심리적 생리적 기제(Psychophysiological Mechanisms)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Bachman 2001:85).

<표-2>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능력, 전략적 능력, 심리적 기제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언어 사용 상황(Context of Situation)과 언어 사용자의 세상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the World/ Knowledge Structure)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언어 능력이란,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에서 실용화되는 구체적인 지식의 집합(a set of specific knowledge components that are utilized in communication via language)’을 의미하며, 전략적 능력은 ‘언어능력의 구성요소를 상황적인 언어 사용에서 실행하기 위한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심리·생리적 기제는 ‘신경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이 언어의 실행에 물리적 현상(소리, 빛)으로 관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Bachman이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의 세 가지 하위구성요소 가운데 심리·생리적 기제는 언어 평가에서 실제로 측정한다는 것이 현재로서 불가능하고, 전략적 능력은

언어 평가에 있어서 수행평가의 한 측면으로 평가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채정화 2004:10). 외교 입시 평가에 대한 본 연구는 지필고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에서 측정될 수 있는 언어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Bachamn과 Palmer는 언어 능력을 다시 하위 구성요소인 구성 지식(구성 능력)과 실용 지식(실용 능력)으로 다시 세분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완기 2003:78).

**Organizational Knowledge 구성 지식(구성 능력)**

(How utterances or sentences and texts are organized)

**Grammatical Knowledge 문법 지식**

(How individual utterances or sentences are organized)

- Knowledge of Vocabulary (어휘 지식)
- Knowledge of Syntax (문장구조 지식)
- Knowledge of Phonology/ Graphology (음운체계 지식/ 문자체계 지식)

**Textual Knowledge 텍스트 지식**

(How utterances or sentences are organized to form texts)

- Knowledge of Cohesion (응집성 지식)
- Knowledge of Rhetorical or Conventional Organization (수사적 구성 지식)

**Practical Knowledge 실용지식(실용 능력)**

(How utterances or sentences and texts are related to the communicative goals of the language user and to the features of the language use setting)

**Function Knowledge 기능적 지식**

(How utterances or sentences and texts are related to the communicative goals of language users)

- Knowledge of Ideational Functions (자기 생각 표현 기능)
- Knowledge of Manipulative Functions (조작적 기능)
- Knowledge of Heuristic Functions (독자적 학습 기능)
- Knowledge of Imaginative Functions (상상적 기능)

**Sociolinguistic Knowledge 사회언어학적 기능**

(How utterances or sentences and texts are related to features of the language use setting)

- Knowledge of Dialects/ Varieties (방언/ 변이형 지식)
- Knowledge of Registers (화역에 관한 지식)
- Knowledge of Natural or Idiomatic Expressions (관용적 표현 지식)
- Knowledge of Cultural References and Figures of Speech (문화적 지시사 및 비유적 표현 지식)

Widdowson은 Bachman의 모형에 대해서 최하위 13개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이완기 2003). 게다가, 의사소통 능력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분리는 의사소통 능력 평가가 극복하고자 했던 분리 평가를 오히려 더 지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온전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온전한 모형을 만들어 내어야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온전하게 측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의사소통의 어떤 측면들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소들을 세세하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하위 구성요소의 어떤 측면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정해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Bachman과 Widdowson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견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소통 능력은 상당히 복잡해서 그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지금까지 평가의 측정 목표가 되는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상황에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사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따라서 있을 법한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수험자가 평가 과제를 해결하는지 못하는지,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하는지, 평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언어 지식은 어느 정도 소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역점을 두고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이완기 2003).

### 2.4.3. 의사소통능력 평가

의사소통 능력 평가의 개발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과, 특히 ‘구체적 목표를 위한 언어교수 및 평가(the teaching and testing of languages for specific purposes: LSP)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Carroll 1980:6-7).

Carroll은 언어교수와 평가에 있어서 어법(Usage)과 언어사용(Use)의 구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법은 주로 언어의 형식과 관련이 있지만, 언어사용은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언어 평가에서 어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학습자들에게 문형의 완전습득이라는 부담을 주게 되어 실제 의사소통에서 언어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언어사용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유창성의 향상은 가져올지 모르지만, 청자나 심지어는 학습자 자신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언어교수나 평가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의사소통 능력 평가에서는 형식적인 정확정보다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채정화 2004:12).

### 2.5. 시험 방식 양상 (Test Method Facets)

언어 평가가 타 학문 분야의 능력 평가와 상이한 점은 평가 수단과 평가 대상 공히 언어라는 점이다. 언어 평가의 내용과 형식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시험 방식 양상(Test Method Facets: Bachman, 1990)이 얼마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의 언어기능과 내용에 근접하며 수험자들의 실력 수준에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시험의 진정성과 타당도가 좌우된다. 이런 점에서 외국어의 시험 출제와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는 시험 방식 양상의 세부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점검해야만 좋은 시험문제가 개발될 수 있고 체계적인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다(최인철 1993). 따라서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이러한 시험 방식 양상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Bachman(1990)은 시험 방식 양상(Test Method Facets)을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있다.

- 1) 시험 환경 (Testing Environment)
- 2) 시험 체계 (Test Rubric)
- 3) 시험 내용 (Facets of the Input)
- 4) 기대되는 수험자 반응 (Expected Response)
- 5) 시험 내용과 수험자 반응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Input and Response)

각각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험 환경 구성 요소는 수험자가 시험 보는 장소와 LAB실 같은 수험장소의 특정한 시설물들과의 친밀성, 시험 시간, 수험자의 컨디션 등이며 시험 체계의 구성 요소는 시험 구성(Test Organization), 시험 시간 분배(Time Allocation), 시험에 대한 설명(Instructions) 등이다. 시험 내용의 구성 요소는 시험 형식(Format)과 언어적 특질(Nature of Language)로 구성된다. 언어적 특질의 구성 요소는 세부적으로 길이(Length)와 어휘(Vocabulary), 문맥의 정도(Degree of Contextualization: Embedded/ Reduced), 새로운 정보의 분배 정도(Distribution of New Information: Compact/ Diffuse), 정보의 종류(Type of Information: Concrete/ Abstract, Positive/ Negative, Factual/ Counter Factual), 주제(Topic), 장르(Genre)가 포함되는 명제적 내용(Propositional Content)과 문법(Grammar), 응집(Cohesion), 수사적 구성(Rhetorical Organization)이 포함되는 구성적 특징(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화용적 특징(Pragmatic Characteristics)으로 구성된다. 기대되는 수험자 반응의 구성 요소로는 형식(Format)과 언어적 특질(Nature of Language)이며 형식의 구성 요소는 응답의 종류(Type of Response: Selected, Constructed), 응답의 형식(Form of Response: Language, Nonlanguage, Both), 수험자가 응답한 언어(Language of Response: Native Target, Both) 등으로 세분화된다(박경신 1996).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시험 방식 양상(TMF) 요소 중에서 시험 체계와 기대

되는 수험자 반응을 위주로 분석한다. 즉, 시험 체계의 요소로서 시험 구성(Test Organization), 시험 시간 분배(Time Allocation), 시험에 대한 설명(Instructions) 등에 대한 분석과, 기대되는 수험자 반응의 구성 요소로서 형식(Format)과 언어적 특질(Nature of Language), 응답의 종류(Type of Response: Selected, Constructed) 및 응답의 형식(Form of Response: Language, Nonlanguage, Both), 수험자가 응답한 언어(Language of Response: Native Target, Both) 등에 대해 살펴본다.

### Ⅲ. 특목고에 대한 배경

#### 3.1. 특목고의 교육목표

특수재능의 개발에 중점을 둔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의 교육목표를 특수재능의 개발과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인성의 함양의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과학고등학교는 "탐구과정을 통하여 과학과 수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과학연구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신장"시키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기본 학력의 강화" "탁월한 외국어 구사 능력 계발", "인성교육 중시" 등을 학교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 3.2. 외국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표-3> 외국어고 전문교과목 및 이수단위

전문교과	교과과목	이수단위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교과별 10개 과목: 독해 I, 독해 II, 회화 I, 회화 II, 작문 I, 작문 II, 청해, 문법, 문화, 실무	과목별 8단위
8개 교과	80개 과목	

외국어고등학교 전문교과목 및 이수단위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전문교과(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에 80개 교과과목(교과별 10개 과목)으로 각 과목의 이수단위는 8단위로 배당되어 있다.

각 과목의 단위수는 8단위이며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전문과목을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고, 국민공통 기본교과에 배당된 56단위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보통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체제는 80개 과목에 대한 전체 교과 성격과 목표가 제시되고 교과별로 교과의 성격에 해당하는 간단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고 과목별로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구분되며, 내용은 다시 의사소통기능, 언어활동, 언어재료로 구성되며, 평가는 평가지침, 평가방법, 평가결과처리 및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제는 80개 과목 모두 동일하며 각 과목별 교육과정 항목별로 짧고 간단하게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차이점은 우선 7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가 6차 교육과정에 비해 보다 체계화되고 탄탄해졌다는 점이다.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함은 물론 언어기능 대신에 언어활동을 도입하여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언어학습에 있어서 활동을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6차 교육과정에서 유의점 항목을 없애고 교수-학습 방법을 새로 편성해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침을 제공하고 내용체계 내에 위치해 있던 평가를 별도의 항목으로 뒀으로써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성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어 전문교육은 장차 세계를 주도하는 데 요구되는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준비교육으로서 필요하다. 영어교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배운 영어교육과 연계지어 한 차원 높은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영어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교과는 일반 고등학교 외국어 교육의 토대 위에 해당 외국어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국제적 식견을 기르는 입문과정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위주의 일방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혹은 방문수업을 통해 실제체험과 활동학습을 함으로써 학술연구와 직업분야에 창조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본역량과 식견을 배양한다.

셋째,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과정에 적용되며, 또한 국제계열 고등학교 전문 외국어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외국어고등학교 일반교육의 범위에서 외국어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외국어에 소질과 재능을 가진 인력을 양성

하는데 목적을 둔다.

넷째,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교과목 편성에 유연성을 둘 수 있게 한 점이다. 각 교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10개 과목을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교과목 편성에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3. 특목고의 교수 학습 방법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특수목적 학교라도 재능 영역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학고등학교의 교수방법은 학생중심, 실험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급당 인원이 30명인 소인수 집단이고 학생 대 교사 비율이 일반계 고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학생중심의 토론, 탐구 수업이 가능하다. 과학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과학실험, 어학실습, 전산훈련 등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과학고등학교는 학교의 실험, 도서관, 컴퓨터 시설 등을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숙사 시설까지 구비하였다. 또한 과학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들은 8월에서 9월까지 KAIST 학사과정 입학전형을 거쳐 2학년 말에 조기 진학하게 된다. 이밖에 포항공과 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2학년 조기 진학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7차 교육과정에 비추어 볼 때 교수-학습장면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가 조직한 일련의 수업절차와 세부적인 교수프로그램을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교수-학습 방법의 궁극적 의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장차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각 과목별로 교수-학습 방법의 기능적 측면에 속하는 구체적인 방법, 예컨대 개인별, 모둠별 활동이라든가 의사소통 연습을 위한 게임, 놀이 활동 등이 제안되어 있으며, 정의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한 방법

이나 화자나 글쓴이의 의도, 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부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방법이 갖는 일반적 교육효과와 각 과목과 직접 관련된 교육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교과 차원에서 새롭게 개념화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 IV. 외교 입학시험 분석 및 내용 타당도

### 4.1. 외교 입학시험의 성격

외국어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200~400명을 전국 단위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전형 지원자격은 대부분의 학교가 3학년 1학기 영어과목 성적이 80점 이상이거나 영어 석차백분율 30%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sup>4)</sup> 외교 입학시험에서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학생을 선발한다. 외국어고 특별전형은 학교성적 우수자(교과 성적 3~14%)와 외국어 특기자, 경시대회 수상자, 학교장 추천자, 회장·부회장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전형은 ‘학교내신+ 영어듣기평가+ 구술면접’으로 선발한다. 이중 중학교 내신의 실질반영률은 대부분 4~7% 내외로 높지 않다. 사실상 학교별 영어듣기평가와 구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셈이다. 서울은 100% 듣기 시험이며 30~45문항이 나온다.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으며 40문항일 경우 틀린 문항이 5개 내외여야 합격권에 들 수 있다. 구술면접은 언어형, 영어지문 제시형, 사고력형, 사회과학통합형으로 나뉘며 대부분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내용에서 출제된다.<sup>5)</sup>

서울과 경기지역 외국어고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같이 내신에 영어평가(듣기)와 구술면접 또는 지필고사의 점수를 더해 합격자를 가린다. 다만 영어를 뺀 나머지 외국어 특기자는 해당 외국어 듣기와 에세이 쓰기, 인터뷰로 영어평가와 구술면접 또는 지필고사를 대신한다. 대원외고와 이화외고는 영어 특기자에게 추가로 구술면접을 요구한다. 서울지역 외국어고는 10~12개 문제를 30~50분 풀고 난 뒤 면접관 앞에서 5~10분 질문에 답하는 구술면접을, 경기지역 외국어고 중 고양과 과천, 안양, 명지(의왕)는 과목별 50분 내외의 지필고사를 각각 실시한다.

---

4) 동아일보 2005. 9/6

5) 동아일보 2005. 9/6

대원외고(서울)와 서울외고, 경기의 대다수 외국어고는 일반전형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 상위 30% 이내 혹은 '우' 이상을 요구하는 등 자격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외대부속 외고(경기 용인)와 서울·경기 이외 지역의 일부 외국어고는 일반전형 응시자에게도 주요 교과 상위 10% 이내 또는 '수' 이상을 요구한다.

경기의 동두천·한국외대부속 외고는 30~60분 풀고 5~15분 답하는 심층·구술 면접을 택하고 있다. 한국외대부속 외고(수리 6개)를 뺀 나머지 경기지역 외국어고의 구술면접 또는 지필고사의 문항 수는 20개에 달했다.

내신 실질 반영률이 낮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외국어고 입시에서는 영어평가와 구술면접 또는 지필고사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한다. 여타 지역의 외국어고는 특별·일반 전형 모두 내신과 일반면접만으로, 또는 내신과 독해능력도 묻는 영어평가로 신입생을 뽑는다.

부산국제외고와 부일외고(부산)는 내신과 일반면접으로 뽑는다. 인천외고와 경북외고(구미)는 특별전형에서 일대일 영어 인터뷰, 일반전형에선 각각 국어와 수학 12문항으로 된 지필고사(만점 50점·40분)와 영어 듣기, 독해, 인터뷰를 진행한다. 전북외고(군산)는 각각 일반면접과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구술면접(60점 만점)을 실시한다.

내신 실질 반영률이 높지만 이들 고교에서도 비슷한 교과 성적의 수험생이 경쟁하기 때문에 영어평가와 구술면접, 지필고사, 인터뷰에서 합격 여부가 갈린다.

보통 40~60분에 30~50문항을 소화해야 하는 외국어고 영어평가는 서울의 6개 외고를 비롯한 대부분 외국어고가 영어듣기로만 진행한다. 경기의 고양·과천·안양·명지, 서울과 경기 이외 지역의 일부 외국어고는 독해 평가를 추가하기도 한다. 서울은 장문의 듣기를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출제해 수능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략 5문항 내외로 틀려야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 경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해력을 강조하고, 어휘 수준과 지문 길이 등의 난이도는 서울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다.<sup>6)</sup>

대원외고는 지난해 영어평가에서 토플형 장문 듣기 문제를 추가했고 보기 지문

6) 세계일보 2005. 9/25

을 들려주는 단순 듣기는 7문제나 줄어 어려웠다는 평가다. 한영외고는 지난해 듣기평가에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와 표, 그림과 함께 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토익 토플형 문제가 많았다. 대일외고는 장문형 듣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김대용 교감은 “지난해 신입생의 토익 평균 성적이 800점으로 향상됐고 영어 듣기평가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여자외고의 영어듣기평가는 한 문항에서 여러 개의 정보를 묻거나, 들려준 내용과 유사한 의미를 찾는 문제 등 정확한 듣기능력 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46문항에서 33문항으로 줄었지만 장문형 듣기가 추가돼 난이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내신 실질반영률이 17%로 높다. 명덕외고는 지난해 영어듣기평가에서 대화형 듣기와 장문듣기 문제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올해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서울외고는 듣기, 어휘, 독해능력을 동시에 측정하는 ‘멀티형’ 문제를 선호하는 편이다. 내신 실질반영률이 27%로 높아 내신 우수 학생이 유리하다. 용인외고의 영어듣기 평가는 55문항을 60분 안에 풀어야 한다. 토플과 비슷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는 평가다.<sup>7)</sup>

#### 4.2. Bachman & Palmer의 의사소통 능력 모형에 의한 분석

7차 교육과정은 물론 현대의 언어 평가에서 의사소통 능력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잘 알려진 Bachman & Palmer의 의사소통 능력 모형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소들이 외고 입학시험에서 어느 정도 평가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Bachman에(2001)에 따르면,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능력, 전략적 능력, 심리·생리적 기제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능력은 구성 지식과 실용 지식을 포함하며, 구성 지식은 문법구성 능력(문법 지식)과 텍스트구성 능력(텍스트 지식)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문법구성 능력은 어휘에 대한 지식과 형태소 규칙, 문장구성 규칙, 음운체계 지식, 문자체계 지식 등 언어의 규칙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맥락과 비교적

---

7) 동아일보 9/6

독립적이라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요소를 묻는 문항이 해당한다.

텍스트구성 능력은 일정한 의미를 가진 일정한 분량의 말이나 글, 즉 텍스트를 구성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응집성과 수사적 구성이 포함되는데, 응집성이란 의미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 방식으로 지시어 사용, 생략법, 접속사 사용, 상응적 어휘나 구조의 사용, 신규 정보의 조직 등이 포함된다. 수사적 구성이란 말이나 글이 전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통일성과 효과성 등에 관한 지식으로, 여기에는 해설, 묘사, 비교, 분류, 과정의 분석 등이 포함된다(채정화, 2004).

즉, 텍스트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문장 사이의 상호 관계와 관련된 문항들로 주어진 지문 속에서 특정 사실이나 정보를 찾는 문항을 포함하여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 찾기, 논리적 연결사 찾기, 제목 추론 등 지문과 함께 출제되는 듣기형 독해 문항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 듣기 유형의 그림 묘사를 비롯해 지도·장소 파악, 그림의 순서 배열, 대화 장소 및 관계 파악, 세부 내용 일치, 구체적 정보 파악, 액수·요금·숫자 파악, 시각·기간 파악, 지칭 추론, 전후문맥 및 문맥상 의미 파악 유형 등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이들 각각의 유형은 ‘외고 입시 평가 시험 유형 분석’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기능적 능력이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경험에 비추어 표현하는 기능, 언어 자체의 속성을 잘 이용하여 창의적인 표현이나 유머러스한 표현 등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채정화 2004). 이러한 기능적 능력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지필고사의 형태로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이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표현, 속담, 문화적 지시어, 비유 등을 상황에 맞게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채정화 2004). 즉, 상황에 맞게 말이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주어진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묻는 문항, 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을 묻는 문항, 속담 및 격언, 적절한 응답 및 결론, 상황에 적절한 말 혹은 어울리지 않는 대화 고르기, 전화목적 파악, 주제·요지 파악, 이유·의도 파악, 분위기·심경·태도 파악, 의견·주장·결론 도출 등의 문항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들 각각의 유형 또한 ‘외고 입시 평가 시험 유형 분석’ 편에서 구체적으로 유형의 예를 다룰 것이다.

Bachman & Palmer의 의사소통 능력 모형의 하위 구성요소 가운데, 언어능력에 관한 문항의 출제비율은 다음 <표-4>과 같다.

<표-4> Bachman & Palmer의 의사소통 능력 모형에 의한 분석

학교	학년도	의사소통 능력				전체 문항수
		언어능력				
		구성능력(구성지식)		실용능력(실용지식)		
		문법 능력	텍스트구성 능력	기능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대원외고	2003	-	20	-	13	33
	2004	-	30	-	10	40
	2005	-	29	-	16	45
대일외고	2003	-	34	-	16	50
	2004	-	25	-	10	35
	2005	-	25	-	15	40
명덕외고	2003	-	15	-	15	30
	2004	-	15	-	14	29
	2005	-	17	-	13	30
서울외고	2003	-	16	-	8	24
	2004	-	21	-	9	30
	2005	-	20	-	12	32
파천외고	2003	-	10	-	6	16
	2004	-	32	-	8	40
	2005	1	29	-	10	40
합계	개	1	338	-	175	514
비율	%	0.2%	64.5%	-	33.4%	100%

Bachman & Palmer(1996)의 의사소통 능력 모델을 기준으로 외고 입학시험 문항을 분석한 결과, <표-4>와 같이 텍스트 구성 능력이 64.5%, 사회언어학적 능

력이 33.4%로의 비율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적 능력은 전체 분석 대상의 기출 문제 중 1문항뿐이었으며, 기능적 능력은 사용 목적에 맞게 실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므로 입학시험의 평가 문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학교별·학년도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텍스트 구성 능력 평가가 사회언어학적 능력 평가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높은 비율로 출제되었으며, 사회언어학적 능력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와 같이 외고 입시 평가에서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 평가에 비해 텍스트 구성 능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고 입시 평가가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시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말이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더 큰 비중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3. Test Method Facets(TMF) 시험 방식 양상에 근거한 타당도 분석**

#### **4.3.1. 영역별 시험 구성, 비중 및 방식**

외고 입시 평가는 능숙도 테스트(Proficiency test)로써 수험자의 영어에 대한 능력을 선다형 문항(Multiple Choice Items)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이는 채점기 용이하며,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적어 신뢰도가 높은 편이지만 모든 문제가 선다형 문항이어서 테스트 형태(Format)가 다양하지 못하며, 수험자의 능력을 다양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외고 입시 평가는 듣기 능력을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어, 시험의 구성에 있어서 문법과 어휘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주 드물게 어휘나 관용 표현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나, 이 또한 대화나 담화 속에서 문맥상 적합한 다른 표현을 고르는 복합적인 문항이다. 쓰기 평가의 경우 외고 입시 특별전형에서 영어 에세이 쓰기 시험을 실시하는 학교가 다수 있으며,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일반 전형 지필 고사에서는 아주 드물게 문장의 순서 배열이나, 삽입, 제거 유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

별 분석이 아닌 듣기와 읽기 위주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재 외고 입학시험에서 취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듣기 평가는 원어민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거나 추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말하기 평가는 수험자가 녹음된 원어민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말에 대한 적절한 응답 고르기, 적절한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말 찾기, 상황에 적절한 말 고르기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읽기 평가는 외고 입시 평가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듣기형 독해 문제와 통합 교과형 문제 형태로 측정하고 있으며, 음원과 문자를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듣기와 읽기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고 있다.

다음에서 최인철의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개발 모델’에 제시된 출제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필수 조건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 외고 입시 평가의 시험 구성 및 방식은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 **(1) 청해 및 듣기형 독해**

#### **- 문항수 및 수험시간**

청해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시험내용을 읽는 발음속도이다. Rivers(1980)에 의하면, 보통 발음속도가 160~190WPM(Words Per Minute)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 변수(상황, 화자, 격식 등)에 따라 속도는 얼마든지 달라진다(Choi 1992). 선택지를 문제지에 제시해야 할 경우에는 선택지를 읽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문제가 들려진 후 선택지를 읽고 답을 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 12초 정도, 즉 각 선택지당 약 2~3초 정도로 제한하여 속도시험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참조: TOEFL:약 15초; TOEIC:약 10초)(최인철 1993).

외고 입시 평가에서 시험내용을 읽는 발음속도에 대한 분석과 선택지를 읽는 시간에 대한 분석은 이후의 속도분석과 관련된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 음성언어 vs. 문자언어 vs. 이미지**

청해 시험은 음성언어의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청해 지문이나 질문을 듣고 글로 쓰인 선택지를 보고 그 중에서 답을 고르는 형식이 대부분이

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청해력과 독해력이 혼합되어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능력이 애매해지는 내용타당도 및 구인타당도의 문제점이 대두된다(최인철 1993).

외고 입시 평가에서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제시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시문은 음성과 문자로 동시에 제시하며, 청해 지문이나 질문을 듣고 선택지를 문자나 이미지로 제시하는 유형과 음성으로 제시하는 유형이 각각 따로 있다. 학교별로 상이하지만, 청해 지문과 질문 그리고 선택지 모두를 음성으로 제시하는 유형도 전체 문항 중 10% 정도를 차지한다.

외고 입시 평가의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의 경우에 장문의 지문을 주어진 시간 내에 읽고 들려주는 질문에 문자로 제시되는 선택지를 고르는 유형과 질문·선택지 모두를 들려주고 정답을 고르는 유형이 있다. 또한 장문의 지문 혹은 담화를 들려주고 질문과 선택지를 듣거나 보면서 고르는 유형도 있다.

선택지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수험자의 전략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문, 질문, 선택지를 모두 들려주는 경우 또는 질문과 선택지를 들려주고 정답을 고르는 유형일 경우 들려주는 내용의 길이에 따라 수험자의 기억력 부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즉 들려주는 내용의 길이가 너무 길면 순수하게 청해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고 자칫 수험자의 기억력 테스트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의 예는 이후에 다루어질 문제 형식(Format)에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 - 청취 횟수

최인철에 따르면 시험 상황에서 청해 지문을 두 번 들려주는 방식은 청해 시험의 인위적인 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며 음성의 시·공적인 제약을 보완해 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청해 지문을 두 번 들려줌으로써 수험자는 처음 들을 때 대략적인 의미 파악(Macro-listening)에 신경을 쓰고 질문을 듣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정보를 찾기 위한 청해(Micro-listening)를 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청해 과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고 입시 평가에서는 청해 지문을 한 번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문항에서, 청해 지문을 들려주기에 앞서 문자와 음성으로 지시문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자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들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지문을 활용해 비교적 자연스러운 구어의 특징을 살리고 있다. 하지만, 시험 문제 제작 및 음원 녹음을 각 학교별로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녹음 환경 및 성우들의 연기력에 따라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상황을 생생하게 재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을 취하는 학교 중에서 들려주는 장문의 지문을 문제지에 제시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들려주고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구두 지문이 아닌 문어체 종류의 글을 듣고 푸는 문제로 청해와 독해 능력 측정에 혼합된 다소 인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수험자의 언어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 청해 지문 길이

중상위 실력집단을 위해서는 실제 회화 상황을 잘 반영하는 문맥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단위(Chunk)로써 청해 지문의 길이를 조정하며 세부적인 청해(Micro-listening) 능력을 측정하는 진정한 종합적 언어능력인 청해 능력을 측정한다(최인철 1993).

외고 입시 평가에서 청해 지문의 길이는 비교적 짧은 대화나 담화, 중간 대화나 담화, 장문의 대화나 담화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각 학교별로 상대적인 길이의 경향이 다른 편이다. 특히, 질문·대화·보기 모두를 음성으로 제시하는 문제 중에서 다음의 예와 같은 문제는 대화가 너무 짧은 것이 문제 풀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즉 문맥을 통한 이해력 문제가 아닌 표현을 바꾸어 쓸 수 있는지의 능력을 묻는 paraphrasing 문제에 가깝다. 또한 소음 등 시험환경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짧은 대화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예) [2.5점]

(Script)

M: How's John feeling today?

W: He's still running a temperature.

Question: What does the woman say about John?

① He likes running.

- ② He is very healthy.
- ③ He feels very comfortable.
- ④ He still has a fever.
- ⑤ He's still in the race.

(2004학년도 대원외고, 13번 문항)

다음은 장문의 청해 지문을 들은 후 이어지는 질문을 듣고 답을 구하는 형식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청해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고, 지문의 성격 또한 독해 지문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듣고 푸는 문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지문을 모두 들려준 후 질문을 들려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청취 능력을 측정하기 힘든 경향이 있다.

예)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2.3점]

- ① Do not argue.
- ② Do not be lazy.
- ③ Do not rush.
- ④ Do not lie.
- ⑤ Do not complain.

**(Script)**

Kamal lives in a little village. Every day he goes out with his sheep. He stays with the sheep all day. In the evening, he comes back to the village.

One day, the boy thinks, "I do not like this! I am with the sheep all day. The sheep do not talk, and they do not listen to me. What can I do?"

Kamal sits there for some time. Then he says, "I know!" And he cries, "Wolf! Wolf!"

In a few minutes, people come running from the village.

"Where is the wolf?" they ask.

"Oh, there is no wolf," says the boy. "I wanted to see you and talk to you."

The people are not happy. They go back to the village. "That bad boy!" they say. The next day, Kamal is with his sheep. Again, he does not want to be alone.

He cries, "Wolf! Wolf!"

Again, the people come from the village. This time, they are very angry. "You must not do that again!" they say. "Next time, we are not going to listen."

And they go back to their work.

That same afternoon, Kamal is alone with his sheep. He is almost asleep.

Then he hears something in the trees. He opens his eyes. It is a wolf. The wolf is coming to eat his sheep.

"Help! Help!" cries Kamal. "There is a wolf!"

The people in the village hear the boy, but this time they do not come.

So Kamal runs away, and the wolf kills and eats all the sheep.

(Question): What is the lesson of this story?

(2004학년도 대원외고 37번 문항)

### - 다양한 시험방식

시험방식에 맞춘 수험자들의 수험전략에 따라 부당한 불/이익을 극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활용이 바람직하다. 특히, 실생활에서 시청각 기관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 입력을 활용하는 시험유형도 포함되어야 한다. 외고 입시 평가에서는 삽화나 그림 혹은 사진 등을 활용한 시각적 입력을 통한 시험유형도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험유형의 예로서는 지도상에서의 위치 및 장소 파악 문제, 그림·인물 묘사, 그림의 상황에 맞는 대화, 도표나 그래프 제시형 문제 등이 있다. 구체적인 시험유형에 대한 설명은 외고 입시 평가 시험 유형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볼 것이다.

## (2) 듣기형 독해

### - 문항수 및 수험시간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홍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외국어능력의 중요한 요소인 속독능력을 측정한다는 차원에서도 속도시험 양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종합적 언어능력평가에선 통상 1분에 한 문항을 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인철 1993).

외고 입시 평가에서 독해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모든 학교는 듣기형 독해 시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어지는 지문의 길이에 따라 보통 40초에서 1분 정도의 읽기 제한 시간을 두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 후에 질문을 들려준다. 독해의 문항 비

율은 다음에서 다루어질 듣기의 유형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 독해지문 내용 및 1지문 1문항 원칙

배경지식 없이 언어능력이 존재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언어능력시험에서는 배경지식이란 변수가 수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급적 최소화되어야만 타당도가 제고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험내용의 주제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시험의 목적상 시험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시험에서는 비전문적인 학문적인 글 외에도 실생활에 필연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독서물(신문/잡지 기사, 공익/상업 광고, 소설 등)을 포함한 지문 출처의 다양화를 꾀하여 진정한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독해지문의 한 문항을 제시하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의 지문은 지양해야 한다(최인철 1993).

외고 입시 평가에서의 독해 문제는 비전문적인 글을 포함해 다양한 지문 출처와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스포츠, 바디 랭귀지, 광고, 그래프, 음식·식사 등의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재료, 방송 매체·쇼핑·학교생활 등의 생활 관련, 자연·환경·과학, 동물, 사회적 이슈 등의 사회생활 관련, 직업,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경제, 사건·사고, Tales, 사물의 유래 등이 그 예이다. 2003학년도 이후 듣기형 독해 유형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한정된 문항수와 전형화된 문제 유형의 이유로 지문의 내용 또한 이전에 비해 다양하지는 못한 편이다.

외고 입시 평가 문항 중에는 통합교과형 문제가 있다. 통합교과형 문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 내용을 영어로 테스트하는 것으로 그 시험의 취지는 좋아 보이나 영어 의사소통능력 측정이라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유형으로 시험의 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모국어 사용자에게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테스트해 본 결과,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학·수학 공식을 몰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사라졌지만 현재도 극소수의 학교에서 이러한 유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통합교과형 문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혹은 상식적인 수준의 교과 내용을 다루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최근에 출제된 통합교과형 문제 유형의 예이다.

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들려주는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고르시오.(1.5점)

①사람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터운 근육으로 되어 있다. 심방은 대정맥과 폐정맥을 통하여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고, 심실은 혈액을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②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③벽이 두껍고 탄력이 커서 혈액의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다. 동맥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점점 가늘어져 마지막에는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된 모세 혈관으로 이어진다. 모세혈관은 ④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어 여러 가지 물질을 조직 세포와 교환하고, 다시 합쳐지면서 정맥으로 연결된다.

정맥에는 온몸에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이 흐른다. ⑤정맥은 동맥에 비하여 혈관의 벽이 얇고 탄력이 약하여, 군데군데 판막이 발달되어 있다.

(Script)

W: When the blood gets pumped by your heart, how does it know which way to go? Well, your blood relies on four special valves inside the heart. They're in charge of controlling the blood flow. They open up to let the blood move ahead, then they close quickly to keep the blood from flowing backward.

(2004학년도 서울외고, 26번 문항)

예) 다음을 듣고, 들려주는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고르시오.(1.7점)

(Script)

M: In the late 1920s, there was peace among the nations. At that time, the United States was doing well and taking steps to become the leader of the global economy. Suddenly, the United States came to face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stock prices fell sharply in the New York stock market. Many banks and factories went bankrupt. In addition, many factory workers lost their jobs and were forced out on the street. Finally, this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spread all over the world.

- ①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빼앗고 본격적으로 대륙침략에 나섰다.
- ②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념이 대립하는 냉전시대가 개막되었다.
- ③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져 자본주의에 대항하였다.

- ④ 서양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해외의 식민지 획득경쟁을 시작하였다.  
 ⑤ 미국정부는 자유 방임경제정책을 수정하고 기업 활동에 개입하였다.

(2004학년도 명덕외고, 27번 문항)

예)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1.5점)

(Script)

W: John, do you know that computers are nothing but a powerful calculator?

M: Yes, the only thing they understand is numbers.

W: Can you tell me how they understand numbers.

M: Um...computers only understand "on" and "off."

W: Does that mean they can only recognize zero and one?

M: Right. It is called the binary system. In the binary system, 0 and 1 have the same value as in our ordinary number system. But the number 2 in our system is one-zero in the binary system, and the number 3 is one-one in the binary system.

W: Okay, if you think of 5 in our system, what number would that be equal to in the binary system?

M: Do you want me to change the number 5 into a binary number?

W: Yes. What is it?

- ①  $100_{(2)}$     ②  $101_{(2)}$     ③  $110_{(2)}$     ④  $111_{(2)}$     ⑤  $1000_{(2)}$

(2004학년도 명덕외고, 28번 문항)

예)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이 각자의 집을 출발 한 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시각을 고르시오.(1.7점)

(Script)

W: James and Brown are schoolmates. James lives in the eastern part, and Brown lives in the western part. There is only one road between their houses. The road is straight and its length is 15km from James' house to Brown's. They promised to meet somewhere in between their houses. They leave their houses at the same time at twelve o'clock sharp. James walks at the speed of 1 km/h, and Brown 2 km/h.

- ① 4 o'clock            ② 5 o'clock            ③ 6 o'clock  
 ④ 7 o'clock            ⑤ 8 o'clock

(2004학년도 명덕외고, 29번 문항)

예) 다음을 듣고, 검은 탁구공이 실험대에서 떨어져 상하운동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땅에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전체 거리를 고르시오.(1.5점)

(Script)

M: Yesterday I had class in the physics laboratory. There were two ping-pong balls in a box: one was black and the other was white. My teacher told me to measure the elasticity of the two balls. So I did it as follows: First, I put the black ball on the testing table which was 40 cm high. Second, I let the ball drop to the ground from the table. It bounced two times and finally landed on the ground. Every time it bounced, it repeated the same straight, vertical course and its height reduced by half.

- ① 60 cm                      ② 70 cm                      ③ 90 cm  
④ 100 cm                      ⑤ 200 cm

(2004학년도 명덕외고, 30번 문항)

#### - 시험유형별 문항제시

독해 목적이 우선 정해지고 나서 독해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더 부합하나, 외고 입시 평가에서는 제시된 지문을 제한된 시간 내에 읽고 들려주는 질문에 선택지를 보고 답을 고르거나 질문과 선택지를 모두 들려주고 답을 고르는 유형이다. 선택지가 문자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선택지를 보면 어떤 유형의 질문이 나올지 대략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도 다수 있어 질문 자체를 음성으로 듣고 푸는 문항제시 방식의 취지가 애매하다. 또한 질문과 선택지 모두를 듣고 푸는 문제의 경우, 제한된 시간에 독해를 하고 음성 질문을 통해 독해 목적을 확인한 후 다시 독해 지문을 보게 될 경우 수험자에게 기억의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은 이후에 다루게 될 문제 형식(Format) 부분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 - 시험방식

시험방식에 맞춘 수험자들의 수험전략에 따라 부당한 불/이익을 극소화하기 위해 타당성이 인정된 문제방식 중에서 다양한 유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인철 1993).

외고 입시 평가에서 취하고 있는 시험 유형에는 글의 주제·요지 파악, 글의 제목·종류 파악, 세부정보 및 내용일치 문제, 심경·태도·분위기 파악, 글의 목적 파악, 빈 칸 완성, 요약 및 결론, 지칭·함축 추론 문제, 무관한 혹은 적절한 문장 넣기, (표)계산 문제 등이 있다. 그래프나 만화를 제시하는 유형도 있다.

#### 4.3.2. 선택지

선다형 시험유형의 타당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선택지, 즉 오답지(Distractors)와 정답(Key)의 내용타당도이다(최인철 1993). 선택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중에서 지시문 및 선택지의 언어, 선택지의 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지시문 및 선택지의 언어

지시문 및 선택지를 평가대상언어와 모국어 중 어느 언어를 선택하여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혼용하여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시험방식 요소이다. 종합적인 언어사용능력시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측정대상 언어로 지시문을 제시하는 것이 특히 액면타당도(Face Validity)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언어능력이 미흡한 수험자를 고려해 볼 때는 시험방식에 대한 지시문의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의 언어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은 구인타당도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음성(청해) 및 문자언어시험(어휘, 문법, 독해) 공히 측정대상언어와 함께 모국어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인철 1993).

외고 입시 평가에서 대부분의 지시문은 한글로 제시되고 있으며 선택지의 언어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영어와 한글을 적절히 혼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간혹 선택지의 내용을 삽화나 그림으로 제시하는 유형도 있다. 선택지의 길이와 관련해서, 특히 세부내용일치 문제나 선택지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유형의 경우 지나치게 긴 내용의 선택지가 간혹 있다.

다음은 세부 내용 일치와 관련된 문제 유형으로, 지문을 듣고 보기의 내용 중 들려주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의 예이다. 보기의 내용이 너무 니없이 길어 보기가 아닌 오히려 독해용 지문에 가깝다. 보기를 읽는 데 주어진 시간은 1분 35초로 비교적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나, 보기를 읽는 동안 들려준

내용을 기억하기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 놓는 등의 요령이 없이는 답을 선택하기 힘든 문제이다.

예) 다음을 듣고, 들려주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2.2점)

☞ Safe Shopping on the Web ☞

(Script 생략)

- ① Know the difference between purchasing from a business and an individual. Your legal protections as a consumer might be different when buying from an individual.
- ② If you're not familiar with an online store, take the same precautions you would with traditional mail or telephone merchants. Ask your friends about sites where they have successfully shopped online.
- ③ Offer your credit card numbers and social security number to as many shopping sites as possible so that you can get many discount coupons for brand-new items.
- ④ At the end of the transaction, refresh or reload the web page and clear the memory and disk caches to remove credit card information from your computer and browser.
- ⑤ Before completing an online transaction, read the site's delivery and return policies. Make sure that an unsatisfactory product can be sent back for a refund.

(2004학년도 대일외고, 33번 문항)

다음의 예는 세부 내용 일치와 관련된 문제로, 제한된 1분 내에 지문을 읽고 들려주는 질문과 보기를 듣고 푸는 문제이다. 5지 선다형이면서 들려주는 선택지의 길이가 너무 길어 수험자의 기억부담이 우려되며 여러 가지 시험환경상의 변수에 따라 수험자의 진정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 (1분)

Memory plays an important part in learning and thinking. People have different abilities to remember. Stress and illness can decrease the ability to remember. Good health helps good memory. Practice also improves memory. For example, the more math facts you learn, the easier it is to learn math facts. People gather and remember information in different ways. Some people remember colors or smells or sounds. Other people find it easier to remember spoken words. Still others remember printed words easily. The ability to remember

does not always decrease with age.

-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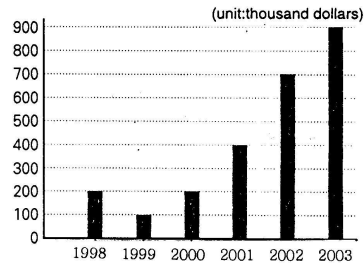
(Script)

Question: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is **false**?

- ① People have their own ways to remember.  
② Memory has nothing to do with health.  
③ People can improve their ability to remember.  
④ As people get older, they do not always lose their memory.  
⑤ Memory is an important factor in learning and thinking.

(2004학년도 대원외고 28번 문항)

예) 다음은 한 벤처기업의 6년간의 수익을 나타낸 표이다.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 ① The profits have increased steadily since 1999.  
② The profits in 2000 were twice as much as those in 1999.  
③ The profits in 1998 were the same as those in 2000.  
④ Since 1999, the profits have increased by one hundred thousand dollars every year.  
⑤ In 1999, the profits decreased by one hundred thousand dollars from those of the previous year.

(2005학년도 대원외고 30번 문항)

위의 예와 같이 선택지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길거나 음성으로 들려주는 선택지의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 목표하는 측정요소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 - 선택지 수

외고 입시 평가는 5지 선다형 문제이다. 이는 추측에 의한 정답률을 낮춤으로써 무분별한 추측을 다소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청해력 시험에서 선택지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경우, 수험자들의 기억부담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다.

#### 4.4. 듣기 유형별 문항 비율 분석

듣기의 유형은 듣기의 대상, 상황, 목적, 내용, 속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상적인 듣기 활동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영화, 연극, 강연, 설교 등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 친구나 혹은 다른 사람과 말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도 적절하게 반응을 나타내며 말을 하는 쌍방적 듣기도 있다. 그 중에서 쌍방적 듣기가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일방적 듣기도 쌍방적 듣기 못지않게 많고 또한 중요하다(임백규 2004).

외고 입학시험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듣기 유형과 듣기형 독해 유형이 있다. 일상적인 듣기 활동에 해당하는 일반 듣기 유형과 쌍방적 듣기 활동에 해당하는 듣고 말하기 유형, 그리고 주어진 지문을 읽고 해당 질문과 보기를 듣고 답하는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이 그것이다. 다음은 외고 입학시험에 출제되는 두 가지 듣기 유형과 듣기형 독해 유형의 문제 비율이다.

<표-5>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듣기형 독해 문제 비율 분석

유형 학교	학년도	일반 듣기	듣고 말하기	듣기형 독해 (통합 교과형)	합계
대원외고	2005	38	7	0	45
	2004	24	4	12	40
	2003	25	6	12	43
대일외고	2005	35	5	0	40
	2004	16	3	16	35
	2003	12	3	35	50
명덕외고	2005	25	5	0	30
	2004	26	4	0	30
	2003	21	9	0	30
서울외고	2005	24	8	0	32
	2004	20	5	5(통합교과형)	30
	2003	21	3	0	24
과천외고	2005	14	5	21	40
	2004	13	3	24	40
	2003	12	4	24	40
합계 비율		326 59.4%	74 13.5%	149 27.1%	549 100%

일반 듣기 유형 59.4%, 듣고 말하기 유형이 13.5%로, 일반 듣기 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듣기형 독해문제는 27.1%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형은 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 최근 들어 사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대신 일반 듣기나 듣고 말하기 유형의 출제비율을 높이고 있다. 듣기형 독해 유형의 출제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 보아 이와 같은 시험방식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듣기 능력과 독해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는 듣기형 독해 유형이 각각의 언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 4.5. 문제 형식(Format) 분석

외고 입시 평가에서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제시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시문은 음성과 문자로 동시에 제시하며, 청해 지문이나 질문을 듣고 선택지를 문자나 이미지로 제시하는 유형과 음성으로 제시하는 유형이 각각 따로 있다. 학교별로 상이하지만, 청해 지문과 질문 그리고 선택지 모두를 음성으로 제시하는 유형도 있다.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의 경우에 장문의 지문을 주어진 시간 내에 읽고 들려주는 질문에 문자로 제시되는 선택지를 고르는 유형과 질문·선택지 모두를 들려주고 정답을 고르는 유형이 있다. 또한 장문의 지문 혹은 담화를 들려주고 질문과 선택지를 듣거나 보면서 고르는 유형도 있다.

다음에서 일반듣기·듣고 말하기 유형과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의 문제 형식을 문제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4.5.1.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 유형 문제 형식(Format)

###### - 한글 지시문·문제+ 음성 지문+ 문자 선택지 형식

먼저 일반듣기와 듣고 말하기 유형의 문제 형식을 살펴보면, 지시문과 문제를 한글로 제시하고 음성으로 들려주는 대화나 지문을 듣고 문자로 제시된 선택지를 보고 답을 고르는 형식이 있다.

예)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1.5점]

- ① riding a bicycle                      ② buying a bicycle
- ③ repairing a bicycle                  ④ assembling a bicycle
- ⑤ clothes for bicycle riding

(2005학년도 과천외고 3번 문항)

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5점]

Woman : \_\_\_\_\_

- ① Yes. I enjoy movies as a pastime.
- ② Wow, this film was fantastic, wasn't it?
- ③ Okay, those are ours. Let's take a seat.
- ④ Right! I hate people who talk during movies.
- ⑤ Sorry, but can you exchange money for goods?

(2005학년도 과천외고 13번 문항)

**- 음성 질문+음성 지문+음성 선택지 형식**

질문과 지문 그리고 선택지 모두를 음성으로 듣고 문제를 푸는 형식이다. 즉, 대화를 듣고 이어지는 질문과 보기를 듣고 답을 고르는 문제이다. 수험자에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온전하게 듣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들려주는 대본은 짧은 대화뿐만 아니라 지문의 형태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 [2.5점]

M: Have you already mailed all your Christmas cards?

W: I already mailed 24 cards and will send a dozen more today.

Question: How many Christmas cards will the woman send in all?

- ① 24      ② 30      ③ 36      ④ 40      ⑤ 46

(2004학년도 대원외고, 12번 문항)

예) [2.5점]

M: What was wrong with you this morning?

W: What do you mean?

M: You walked straight past me, remember?

W: Really? Where?

M: By the mailbox in front of the bakery on 4th Street.

W: I'm really sorry, Charles. I didn't see you.

M: Come on, Mary. You must have seen me.

W: No, honestly. I didn't see you. I would have said hello if I had seen you.

Question: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what did the woman fail to do?

- ① Greet the man.
- ② Buy some bread at the bakery.
- ③ Stop at the bakery.
- ④ Keep her word.
- ⑤ Walk straight past the man.

(2004학년도 대원외고, 15번 문항)

#### 4.5.2. 듣기형 독해 유형 문제 형식(Format)

외고 입시 평가의 독해 문제는 순수하게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듣기 능력까지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제 형식을 살펴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독해 지문을 읽고 들려주는 질문에 문자로 제시된 선택지를 보고 답을 고르거나, 질문과 선택지를 모두 듣고 답을 고르는 방식이 있다. 학교에 따라서 문자로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음성과 동시에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듣기형 독해 유형의 문제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문을 문자와 음성으로 동시에 제시하여 지문을 들으면서 읽기가 끝난 후 들려주는 질문을 듣고, 문자로 제시되어 있는 선택지를 보고 답을 고르는 방식의 예이다.

예)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1.9점)

Animals are treated as little more than 'machines' in factory farms. Every year millions of animals are pushed into tiny spaces. In factory farms, chickens have their beaks cut off, many animals are marked with a hot piece of metal and their tails are cut off cruelly. Dairy cows are constantly pregnant so they keep producing milk. Due to overcrowded condition on factory farms, disease quickly spread and so farmers routinely feed or inject the animals with antibiotics. They are often sprayed with pesticides and to fatten them up quickly they are fed growth hormones. Despite widespread protests, wild animals like minks are still kept in captivity for their fur and other animals are

bred to be used in experiments or exported in extremely bad conditions.

- ① killing animals for fur
- ② using animals for food
- ③ the poor treatment that animals face
- ④ the survival of the endangered species
- ⑤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animals

(2004학년도 대일외고, 17번 문항)

- 주어진 글을 읽고 방송에서 나오는 질문에 맞는 답을 듣고 고르는 문제이다. 지문의 길이에 따라 해석할 시간이 문제 옆에 표시되어 있다.

예) 다음 글을 읽고, 방송에서 나오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2점] (50초)

If we examine the amount of land available for an ever-increasing population, we'll see the problem. If everyone on the planet had an equal share of land, we would each have about 50,000 square meters. This figure seems to be quite encouraging until we examine the type of land we would have. Not all land is useful to humans as it cannot produce food. We can cut out about one fifth of it because it is permanently covered by snow and ice. Then we can cut out another fifth because it is desert. Another fifth is too mountainous or is too great a height above sea-level. A tenth doesn't have enough soil for crops to grow—it is bare rock. Now only the rest can be used as soil for crops to grow.

- ①
- ②
- ③
- ④
- ⑤

(2004학년도 과천외고, 38번 문항)

- 방송에서 나오는 질문을 먼저 듣고, 주어진 글을 읽은 후 문자로 제시되어 있는 선택지를 보고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이다. 지문의 길이에 따라 해석할 시간이 문제 옆에 표시되어 있다.

예) [1.5점]

Question: (Script)

(40초)

This is so common nowadays that many people regard it as no more serious than the common cold. Instead of being treated as an emotional disaster, this is viewed

as some sort of freedom. Even the children are now said to prefer this to a “bad marriage.” Most of the people I know have not lived much better with their second wives or husbands than with their first. And in almost every case, the children have bitterly resented the breakup.

- ① Cancer
- ② Divorce
- ③ Murder
- ④ Bankruptcy
- ⑤ Engagement

(2005학년도 과천외고, 30번 문항)

- 방송에서 나오는 지문과 질문 보기를 모두 듣고 답을 고르는 문제이다.

예) 다음 말을 듣고, 방송에서 나오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2005학년도 과천외고, 38번 문항)

#### 4.6. 청해 속도 분석 -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 문제 속도 분석

Pimsleur, Hancock & Fiurey(1977; Rivers 1981: 173, 재인용))에 의하면 모국어 화자의 일반 발화 속도는 다음과 같다.

<표-6> 모국어 화자의 일반 발화 속도

Speed	Words per Minute(wpm)
Fast	above 220
Moderately Fast	190 to 220
Average	160 to 190
Average Slow	130 to 160
Slow	below 130

듣기 평가 시험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발화 속도가 빠른 듣기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발화 속도가 느린 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점을 주지할 수 있다.

원어민의 말하기 속도는 평균 분당 160~190 단어(Rivers 1980)이며, 뉴스에서는 평균 분당 200단어(최인철 2002)를 말한다. 발음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듣기 평가의 문제는 쉬워지며, 그만큼 변별력도 떨어져서 수험자의 듣기 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내용 타당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결국 느린 듣기 속도에 익숙해진 수험자는 영어 대화를 듣고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듣기는 언어 능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듣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말하기도 가능해진다.

또한 일상생활의 언어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빠른 발음 현상(최인철 2002) 즉, Sandhi 현상은 원어민이 정상속도로 발음하는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외고 입시 평가 듣기 시험에서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듣기 평가 대본의 말하기 속도(Rate of Speech)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제 들려주는 지문의 전체 단어수와 들려주는 음성의 Running Time을 매 문항마다 측정하여 분당 몇 단어를 말하는지 계산하였다. Running Time 측정에서는 지시문을 읽어주는 시간이나 문제 푸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말하는 시간만을 측정하였다. 또한, 대화체 지문에서의 자연스러운 말하기 특성 즉, 주저함이나 Fillers 등의 시간도 측정 시간에 포함시켰음을 밝혀둔다. 듣기형 독해 유형의 문제와 보기를 읽어주는 속도는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각 학교별 학년도에 따른 듣기평가의 단어 수, Running Time, 속도 그리고 선택지를 읽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7> 외고 입시 평가의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 속도

	학년도	단어 수 (개)	Running Time (sec)	Rate of Speech (wpm)	선택지 읽는 시간 (sec)
대원외고	2004	1873	766	146	13
대일외고	2005	-	-	-	-
명덕외고	2005	3607	1326	163	13~18
서울외고	2005	2739	1005	163	12
	2003	2,334	860	167	12
과천외고	2005	1690	696	146	10~13
평균		2,449	931	157	13

먼저, 빠른 발음 현상의 경우 듣기 평가의 발화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어 듣기·말하기에 대한 측정도구로써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선택지를 읽는 데 주어진 시간은 전체 학교 평균 13초로 제시된 선택지의 길이에 따라 차등을 둔 점을 비추어보았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듣기 평가의 발화 속도를 살펴보면, 원어민의 평균 발화 속도인 160~190 wpm에 비해 외고 입시 평가의 평균 발화 속도는 157wpm이다. 이는 듣기 평가라는 약간의 인위적인 측면을 감안했을 때 또한 자연스러운 말하기 특성인 주저함이나 Fillers 등의 시간이 측정 시간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원어민의 평균 발화 속도보다 약간 느린 발화 속도라 할 수 있다. 학교별로 듣기평가의 발화 속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학년도 서울외고의 듣기 평가 말하기 속도는 167wpm으로서 분석 대상의 학교 중 가장 빠른 발화 속도임을 알 수 있다. 원어민 평균 발화속도와 비교해보았을 때도 적당한 수준이라 말할 수 있겠다. 반면 2004학년도 대원외고와 2005학년도 과천외고의 경우 평균 발화 속도가 146wpm으로 원어민 평균 발화 속도에 비해 상당히 느린 속도임을 알 수 있다.

외고 입시 평가는 역량시험(Power Test)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속도화 시험(Speeded Test)이어야 한다. 외고 입학시험 영어 듣기 평가의 최종 목표는 의사소통능력이므로 평균 발화속도 이하로 평가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원어민의 실제 말하기 속도와 가깝게 녹음하여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 4.7. 미시적 청해 능력과 거시적 청해 능력 (Micro-listening vs. Macro-listening)

청해 능력에는 기능별로 미시적 청해 능력과 거시적 청해 능력이 있다(Rivers 1978). 미시적 청해 능력은 간단한 문장을 제시하여 단편적인 능력 요소인 자모음, 억양 및 강세, 빠른 발음 변이 현상의 인식, 어휘 및 숙어, 구문력, 세부내용 파악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유형이다(최인철 1993). 거시적 청해 능력은 의미단위(Meaningful Chunk)의 대화나 담화, 강의, 연설 등을 구두로 제시한 후 수험자가 문제지에서 적절한 선택을 고르게 하는 형태의 시험이다.

다시 말해, 미시적 청해 능력은 청해 능력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사실적인 내용 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듣기 능력을 말하며, 거시적 청해 능력은 전체적인 내용 파악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청해 능력을 보는 것이다.

듣기 평가(Listening Comprehens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상적인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원어민이 정상적인 속도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지려면 'Vocalic Communication' 즉 말하는 속도(Rate of Speech), 말하는 내용의 길이(Volume), 화자의 언어적인 특징(Characteristic), 화자가 말을 끊었다가 하는 정도(Relative Pitch) 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Chastain 1976).

또한 듣기 평가는 기초적인 사실적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듣기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수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듣기평가는 미시적 청해 능력뿐만 아니라 거시적 청해 능력도 측정되어야 한다.

외고 입시 평가에서 미시적 청해 능력 측정을 위한 시험 유형으로는 지도·장소 파악, 그림·인물 묘사, 순서 배열, 시각·기간 묻기, 액수·요금·숫자 파악, 전화목적

파악, 구체적 정보 파악 및 세부 내용 일치 문제 유형 등이 있다. 거시적 청해 능력 측정을 위한 시험 유형으로는 대화 장소 및 대화하는 사람들의 관계, 직업 파악, 상황 파악, 분위기·심경·태도 파악, 이유·의도 파악, 주장·의견·결론 도출, 주제 및 요지 파악, 문맥상 의미 파악, 지칭 추론, 적절한 응답, 적절한 결론, 상황에 적절한 말, 어울리지 않는 대화 등과 같은 유형이 있다.

외고 입시 평가 문항에서의 미시적 청해 능력과 거시적 청해 능력 평가의 문항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표-8> 미시적 청해 능력과 거시적 청해 능력 평가 문항 비율 분석

유형 학교	학년도	Micro-Listening	Macro-Listening	합계
대원외고	2005	22	23	45
	2004	13	15	28
	2003	16	15	31
대일외고	2005	16	24	40
	2004	11	8	19
	2003	6	9	15
명덕외고	2005	12	18	30
	2004	9	20	29
	2003	9	21	30
서울외고	2005	13	19	32
	2004	9	15	24
	2003	10	14	24
과천외고	2005	7	12	19
	2004	6	10	16
	2003	7	9	16
합계(문항수) 비율(%)		166문항 41.7%	232문항 58.3%	398문항

외고 입시 평가에서 미시적 청해능력 측정은 41.7%이며, 거시적 청해능력 측정은 58.3%로 청해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시적 청해능력을 비교적 비중 있게 측정하고 있는 편이다.

## V. 외교 입시 평가 시험 유형 분석

외교 입시 평가에서 측정하고 있는 시험 유형의 종류와 각 시험 유형별 문항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 유형 20개, 듣기형 독해 유형 13개로 분류하여 기출 문제를 분석하였다. 각 유형별 분석표는 다음과 같다.

<표-9> 외고 입시 평가 시험 유형 분석표 (2003~2005학년도)

외고별→ 유형별 ↓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과천외고		
		2003 학년도	2004 학년도	2003 학년도	2004 학년도	2003 학년도	2004 학년도	2003 학년도	2004 학년도	2003 학년도	2004 학년도	
일반 듣기 유형	Micro	지도장소파악		1	1			1	1	1	1	
	Micro	그림·인물 묘사	6	1			2	1	1	1	2	2
	Micro	순서배열						1				
	Micro	시각·기간 묻기	1	1	1			1	2	1		1
	Micro	액수·요금숫자 묻기	1	2	1	4		1	1	1		
	Micro	전화목적파악	1		2		2	1		1	1	
	Macro	대화 장소·관계	2	4	3	1	7	4	2	4	2	2
	Macro	그림상황에 맞는 대화 장면·상황 파악	1				1			1		
	Macro	직업파악	1	1	1		1	1		1		
	Macro	분위기·심경·태도	1	1			2	3	2	1		1
	Macro	이유·의도파악	2	2		2	1	3			1	1
	Macro	의견·주장·결론 도출			1	1		3	3	1		
	Micro	구체적 정보파악	6	6	1	1	3		2	1	2	2
	Micro	세부 내용 일치	1	2		6	2	3	3	3	1	1
	Macro	주제·요지 파악	1	2	1	1		2	3	3	2	2
	Macro	전후문맥 문맥상 의미 파악						1	1			1
	Macro	지칭추론	1	1								
	듣고 말하 기 유형	Macro	적절한 응답	4	4	2	3	6	1	2	2	3
Macro		적절한 결론 요약문 완성	1				1	1	1	1		1
Macro		상황에 적절한 말 어울리지 않는 대화	1		1		2	1		1	1	
독해 듣기 유형		글의 주제·요지	2	2	4	2						6
		글의 종류·제목 파악	2		2	1						2
		세부정보·내용일치	1	5	2	2						5
		심경·태도·분위기		1	3	2						2
		글의 목적파악	1	1	1	2						
		제안·주장·의도·교훈	1	1	6							1
		빈칸 완성	1	1	11	3						3
		요약·결론		1	1							1
		지칭·함축추론			2	1						3
		전후문맥 문장삽입·배열	1		3	2						1
		무관한·적절한 문장 넣기				1						
		(표)계산 문제	3									
		통합교과형 문제								5	대 문 형	
	<b>합계</b>	<b>43</b>	<b>40</b>	<b>50</b>	<b>35</b>	<b>30</b>	<b>29</b>	<b>24</b>	<b>30</b>	<b>16 (40)</b>	<b>40</b>	

외고별→ 유형별 ↓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과천외고		
		2005 학년도	- 학년도	2005 학년도	- 학년도	2005 학년도	- 학년도	2005 학년도	- 학년도	2005 학년도	합계	
일반 배기 유형	Micro	지도·장소파악						1			7	
	Micro	그림·인물 묘사	2		5		1		1		27	
	Micro	순서배열	1		2						4	
	Micro	시각·기간 묻기	2						2		13	
	Micro	액수·요금·숫자 묻기	1		2				3		18	
	Micro	전화목적파악					1		1		10	
	Macro	대화 장소·관계	2		3		3		4		43	
	Macro	그림상황에 맞는 대화 장면·상황 파악	3		3				1		10	
	Macro	직업파악	2						1		9	
	Macro	분위기·심경·태도	1		2		2		2		19	
	Macro	이유·의도파악	3		5		4				26	
	Macro	의견·주장·결론 도출	2		2		1				15	
	Micro	구체적 정보파악	8		1		6		1		43	
	Micro	세부 내용 일치	8		6		4		4		44	
	Macro	주제·요지 파악	3		1		3		2		29	
Macro	전후문맥 문맥상 의미 파악			1				1		5		
Macro	지칭추론			2						1	5	
특고 말하기 유형	Macro	적절한 응답	5		3		3		5		3	48
	Macro	적절한 결론 요약문 완성	2		1		2		1		1	13
	Macro	상황에 적절한 말 어울리지 않는 대화			1				2			10
특 해 특기 유형		글의 주제·요지									6	22
		글의 종류·제목 파악									2	9
		세부정보·내용일치									4	19
		심경·태도·분위기									1	9
		글의 목적파악									1	6
		제안·주장·의도·교훈										9
		빈칸 완성									4	23
		요약·결론										3
		지칭·함축추론									2	8
		전후문맥 문장삽입·배열										7
		무관한·적절한 문장 넣기									1	2
		(표)계산 문제										3
	통합교과형 문제										5	
	<b>합계</b>	<b>45</b>		<b>40</b>		<b>30</b>		<b>32</b>		<b>40</b>	<b>523</b>	

<표-10> 외고 입시 평가 시험 유형별 문항 비율 (2003~2005학년도)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 유형			듣기형 독해 유형		
(출제 우선순위) 시험 유형	문항수 (개)	문항 비율 (%)	(출제 우선순위) 시험 유형	문항수 (개)	문항 비율 (%)
적절한 응답	48	9.2	빈칸 완성	23	4.4
세부 내용 일치	44	8.4	글의 주제·요지	22	4.2
대화 장소·관계	43	8.2	세부정보·내용일치	19	3.6
구체적 정보파악	43	8.2	심경·태도·분위기	9	1.7
주제·요지 파악	29	5.5	글의 목적파악	9	1.7
그림·인물 묘사	27	5.2	제안·주장·의도·교훈	9	1.7
이유·의도파악	26	5.0	글의 종류·제목 파악	9	1.7
분위기·심경·태도	19	3.6	지칭·함축추론	8	1.5
액수·요금·숫자 묻기	18	3.4	전후문맥/ 문장삽입·배열	7	1.3
의견·주장·결론 도출	15	2.9	통합교과형 문제	5	1.0
시각·기간 묻기	13	2.5	요약·결론	3	0.6
적절한 결론, 요약문 완성	13	2.5	(표)계산 문제	3	0.6
전화목적파악	10	1.9			
그림상황에 맞는 대화 장면·상황 파악	10	1.9			
상황에 적절한 말 어울리지 않는 대화	10	1.9			
직업파악	9	1.7			
지도·장소파악	7	1.3			
지칭추론	5	1.0			
전후문맥, 문맥상 의미 파악	5	1.0			
순서배열	4	0.8	전체	523개 문항	100%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의 전체 20개 유형 중에서 적절한 응답 유형이 9.2%로 가장 많은 문항 비율로 출제되었으며, 세부 내용 일치 유형이 8.4%, 대화 장소·관계 파악 유형과 구체적 정보파악 유형이 8.2%, 주제·요지 파악 유형이 5.5%의 문

항 비율로 출제되었다. 그 다음으로 그림·인물 묘사, 이유·의도·파악, 분위기·심경·태도, 액수·요금·숫자 묻기, 의견·주장·결론 도출, 시각·기간 묻기, 적절한 결론, 요약문 완성, 전화목적·파악, 그림상황에 맞는 대화, 장면·상황 파악, 상황에 적절한 말, 어울리지 않는 대화, 직업·파악, 지도·장소·파악, 지칭·추론, 전후문맥, 문맥상 의미 파악 유형 등의 순서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순서 배열 유형이 0.8%로 가장 낮은 문항 비율을 보였다.

듣기형 독해 문제의 전체 13개 유형 중에서 빈칸 완성 유형이 4.4%로 가장 많은 문항 비율로 출제되었으며, 글의 주제·요지 파악 유형이 4.2%, 세부정보 및 내용일치 유형이 3.6%, 심경·태도·분위기 파악, 제안·주장·의도·교훈 파악, 글의 종류 및 제목 파악 유형이 각각 1.7%의 문항 비율로 출제되었다. 그 다음으로 지칭·함축 추론하기, 전후문맥 및 문장삽입·배열, 글의 목적 파악, 통합교과형 문제, 요약 및 결론, 계산 문제의 순으로 출제되었다.

외고 입시 평가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의 예를 일반 듣기 및 듣고 말하기 유형, 듣기형 독해문제 유형으로 나누어 출제 비율이 높은 유형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언어 세계의 특성상 시각 자료를 활용한 듣기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반듣기·듣고 말하기 유형 중 그림 제시형은 따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 5.1. 일반 듣기·듣고 말하기 유형

### - 적절한 응답 유형

듣고 말하기에 속하는 유형으로 짧은 대화나 비교적 긴 대화를 듣고 마지막 말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문제이다. ABA 혹은 ABAB 식의 짧은 대화에 대한 응답 고르기는 실제 의사소통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약간의 인위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EFL 상황 하에서의 언어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예에서처럼 특정 상황에 대한 대화를 듣고 그 상황을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속담이나 관용적인 표현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유형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9점]

Man: Just like the saying, "\_\_\_\_\_"

- ① Grasp all, lose all.
- ② The foot of the candle is dark.
- ③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 ④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 ⑤ You can't scratch your own back.

(Script)

M: What are you doing? Is there something missing?

W: I am looking for my key.

M: Didn't you leave it at home?

W: I remember I had it with me when I was leaving home. My mom told me to take it because she would be out the whole day.

M: Check your bag. Maybe it's in there.

W: No, it's not there. I already checked it.

M: Then, maybe you left it somewhere else. Trace back where you've been today.

W: I've been here all this afternoon. I didn't even move.

M: Did you check your pockets?

W: Can't be there... Wait a minute (pause) Oh, here it is!

M: Just like the saying, "\_\_\_\_\_".

(2005학년도 명덕외고, 12번 문항)

예) 다음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서 들려주는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읽는 시간 40초)

(Script)

M: Julia, \_\_\_\_\_

- ① are you a Muslim?
- ② are you married or single?
- ③ can I ask how old you are?
- ④ who did you give your vote, Bush or Kerry?
- ⑤ don't you think it's kind of hot here?

- 세부 내용 일치 유형

특정 상황의 대화나 지문을 듣고 제시된 선택지에서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답을 고르거나, 제시된 도형이나 그래프 등을 보며 선택지의 내용을 듣고 답을 고르는 유형이다. 수험자에게 언어외적인 기억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해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아야 하며, 선택지를 듣고 푸는 경우 선택지의 적절한 길이와 포즈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세부 내용 일치 유형은 전형적인 외고 기출문제 유형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답 및 오답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이나 문제 출제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그 이유일 수 있겠으나, 의사소통능력 측정을 목표로 하는 외고 입시 평가에서는 세부 내용 일치 유형의 비중을 낮추고 Macro-Listening을 측정하는 문제 유형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 다음 대화를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1.8점)

- ① 남자는 의사이다.
- ② 여자는 응급환자이다.
- ③ 여자는 점심을 먹었다.
- ④ 남자는 환자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 ⑤ 남자는 환자 기록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Script)

M: You must be tired.

W: Yes, I'm exhausted. I still haven't had lunch.

M: All of us have worked hard all day. The emergency room was unusually busy.

W: Yes, it really was.

M: Did you check on all my patients?

W: Almost. I still have two more patients to check on.

M: Did you give them their med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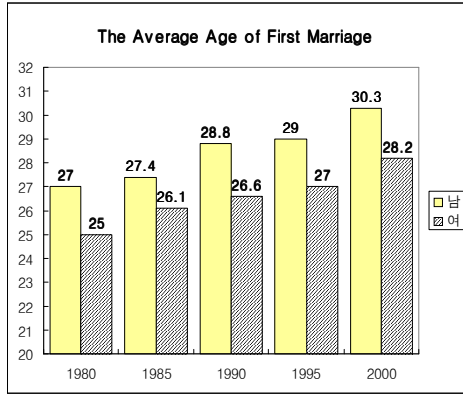
W: Of course. All the patient files are over there on the desk.

M: Great. I need to look at each record before I visit my patients. Thanks for

all the help.

(2005학년도 서울외고 19번 문항)

예) 다음은 한국인의 평균 결혼 연령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9점]



- ①            ②            ③            ④            ⑤

(Script) [보기와 보기 사이 pause 7초]

- ① The average age of both men and women is on the gradual increase. [pause]
- ② In 1995, women's average age is lower than that of men by 2 years. [pause]
- ③ Men's average age in 1980 is the same as that of women in 1995. [pause]
- ④ The average age of women in 1980 is 3.2 years higher than that of women in 2000. [pause]
- ⑤ Between 1980 and 1985, the increase rate of women's average age is higher than that of men. [pause]

(2005학년도 명덕외고, 23번 문항)

예) 다음을 듣고, 하와이에 있는 화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2.1점]

- ① They are located along the Ring of Fire.
- ② They are comparatively mild volcanoes.
- ③ They contain a lot of gas.
- ④ They contain thick lava.
- ⑤ They have high and steep mounds.

(Script)

W: Today, we are going to discuss the volcanoes of Hawaii. They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volcanoes in the Ring of Fire. Hawaiian volcanoes are not located along the Ring of Fire. Therefore they are not caused by the movement of the Earth's plates against each other. Instead, Hawaii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Ring of Fire, above a massive plate rather than where two plates meet. The result is that Hawaiian volcanoes are much gentler than those in the Ring of Fire. Hawaiian volcanoes have much less gas in them, which causes less explosive eruptions. The lava in Hawaiian volcanoes is thinner. This results in mounds that are long and low rather than high and steep, because the lava flows farther and builds mounds gradually with long, low slopes. Mauna Loa, one of Hawaii's most famous volcanoes, actually means "long mountain".

(2005학년도 명덕외고, 28번 문항)

#### - 대화 장소·관계 파악 유형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나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대화 장소를 고르는 문제 유형으로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하는 편이다. 외고입시평가 문제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정기고사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나 이러한 유형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인위적인 형태의 ‘문제를 위한 문제’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다양한 상황 파악 능력과 언어 기능 측정이라는 측면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험 방식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8점]

- ① lawyer - witness                      ② mechanic - driver
- ③ passenger - driver                      ④ driver - passer-by
- ⑤ lawyer - criminal

(Script)

W: Mr. Simon, you said you saw the accident. What were you doing when the accident happened?

M: I was driving home from work. And the blue car was driving along Harbor Street ahead of me. Suddenly a white sports car came out of a side street and cut in right in front of the blue car.

W: I see. Do you know how fast the blue car was driving?  
M: 30 miles an hour. Certainly no more than that.  
W: And the white sports car suddenly appeared without any warning?  
M: Yes, that's right. The driver of the blue car tried to stop, but it was impossible. He crashed into the white sports car.  
W: But how can you be sure that the blue was going 30 miles an hour?  
M: Because I was going 30, and the blue wasn't going any faster than I.  
W: Were you looking at the speedometer when the accident happened?  
M: Of course not. I was looking at the road ahead. That's how I managed to see the accident.  
W: Well, then how can you be so sure you were going 30?  
M: Because I'm well aware that you cannot go faster than 30 on that road. It's against the law. That's why!

(2005학년도 명덕외고, 8번 문항)

#### - 구체적 정보파악 유형

대화를 듣고 한글로 제시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그래프나 그림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맞는 내용이나 틀린 내용을 고르는 문제도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청해 목적이 먼저 제시되어 있어 수험자가 문제에 맞는 정답을 고르기가 수월한 편이지만, 5지 선다형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험자의 언어외적인 기억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무리하게 긴 대화나 지문 또는 선택지는 삼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선택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할 것인가 목표 언어로 할 것인가에 따라 수험 결과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도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선택지의 형태를 한글, 영문, 음성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하는 집의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3점]

- ① 월 400 ~ 450달러의 집세
- ② 대학 근처
- ③ 중앙 냉방
- ④ 발코니
- ⑤ 욕실 2개

(Script)

W: Mr. Smith, to match your needs better, I'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regarding the apartment you are looking for. First, what price range are you interested in?

M: Somewhere between \$400-\$450 a month.

W: Okay. Do you have a specific location in mind?

M: Well, I want to live somewhere near the university. Or at least on a bus line.

W: I see. When are you planning to move in?

M: On the first of November.

W: Okay. Are there any other things you'd like to have? For example, a dishwasher, a balcony, or central air conditioning?

M: I should definitely have a dishwasher, and with summers like these, central air! A balcony is not that important. Oh, two bathrooms would be nice.

W: Okay. Here are photos of the apartments we have available which might fit your preferences.

M: Thank you. This one on Broadway Avenue looks nice. And the one on Main Street, too.

(2005학년도 명덕외고 6번 문항)

예)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고르시오.

(그래프)

- ① ㉠      ② ㉡      ③ ㉢      ④ ㉣      ⑤ ㉤

(2005학년도 대일외고, 20번 문항)

다음 문제는 편지글을 듣고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이다. 이는 언어의 기능을 혼합하여 측정하는 문제가 있다. 듣기 지문의 출처를 문자 기능이 더 강한 편지글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지기 쉬운 상황의 듣기 지문으로 그 출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 다음은 John Trelawney가 Dr. Livesey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John Trelawney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⑤

- 주제·요지 파악 유형

들려주는 대화나 지문을 듣고 주제나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학교에 따라서 들려주는 해당 청해 지문과 일맥상통하는 속담을 고르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되곤 했다. 비교적 다양한 지문의 내용을 출제하고 있는 편이나, 글의 재료와 출처를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선택지 제작에 있어서도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선택지의 언어 형태, 선택지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특히, 주제 및 요지 파악 유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선택지의 내용이며, 문제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답의 명확성을 높이고 오답 매력도를 높이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예) 다음 말을 듣고, 글의 주제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2점)

- ① 마약의 과다 복용
- ② RSP의 사용 방법
- ③ 심장마비의 예방법
- ④ 새로 개발된 심장약의 효능
- ⑤ Stretokinse가 두뇌에 미치는 영향

(Script)

Nowadays, doctors may be able to stop many heart attacks. An important new study reports that doctors have a new drug. This drug is called RSP. It may be better than any other heart drug. Many doctors now use a drug called Stretokinse. But this drug can sometimes cause problems for patients. It can even cause bleeding in the brain. Some doctors don't use Stretokinse. Stretokinse can save about one third of the people with heart attacks, but RSP will save about two thirds. This means many people. About 1.5 million Americans have heart attacks every year.

(2003학년도 서울외고 19번 문항)

예) 다음을 설명을 듣고,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점]

- ① 격려와 칭찬은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 ②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의 조기 진급을 허용하자.
- ③ 학생들의 학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 ④ 성적이 미달된 학생을 유급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⑤ 학년을 반복한 학생의 성적이 대부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Script)

W: In several states across the nation, children who do not achieve the required score on a standardized test will no longer be promoted to the next grade. Instead, they will have to repeat the grade they have finished. Yet,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making children repeat a grade has a positive effect. Research suggests that forcing children to repeat a grade hurts rather than helps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1989, University of Georgia Professor Thomas Holms surveyed sixty-three studies that compared performance between kids who had repeated a grade and those who had received a promotion. Holms found that most of the children who had repeated a grade had a poorer record of academic performance than the children who had been promoted despite poor test scores.

(2005학년도 명덕외고 20번 문항)

#### - 이유·의도 파악/ 의견·주장·결론 도출

대화나 지문을 듣고 이유, 의도, 충고 등을 문자나 음성으로 제시된 선택지에서 고르는 문제이다. 대화나 담화의 의도나 충고를 묻는 문제 중 화자의 충고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속담을 고르는 식으로 자주 출제되었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형은 좀 더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 다음을 듣고 화자의 의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을 고르시오. [2.7점]

- ① To invite a person to the company party
- ② To inform an interviewee of job qualifications
- ③ To recommend a job position to a person
- ④ To notify a person of his failure in getting a job
- ⑤ To congratulate a person on getting the position

(Script)

(2004학년도 명덕외고 20번 문항)

예) 다음은 Romeo와 Friar Lawrence의 대화입니다. Friar Lawrence의 충고와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을 고르시오.

- ① No pains, no gains.
- ② Haste makes waste.
- ③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 ④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 ⑤ You cannot eat your cake and have it.

(Script)

(2005학년도 대일외고, 40번 문항)

예) 다음을 듣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낸 속담을 고르시오. [1.7 점]

- ① Look before you leap.
- ② Practice makes perfect.
- ③ It is never too late to learn.
- ④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 ⑤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Script)

M: You've walked past the alumni pictures of our school many times, but I don't think you've really looked at them. They're not that different from you, are they? Same haircuts just like you. Their eyes are full of hope just like you. Many of the alumni have passed on and are no longer with us, but if you listen real close, you can hear them whisper a valuable legacy to you. Go on, lean in. Listen. Do you hear it? "Carpe diem." Seize the day.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Every day opportunities await us and we must decide whether to take a chance or play it safe. I encourage you to take risks because nothing is gained without them. That's the essence of the saying, Carpe diem.

(2005학년도 명덕외고, 27번 문항)

예) 다음 말을 듣고, 방송에서 나오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W: To write his book, the author Gary Kawasaki interviewed 32 people he considered out-of-the-ordinary. According to him, the men and women he interviewed had a number of traits in common that had helped make them successful. One of the most critical traits was a willingness to tolerate failure without giving up. Instead of giving up, the people he interviewed analyzed their mistakes and figured out what they had done wrong. Then they tried again. For them, failure did not equal defeat.

(Question)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suitable proverb that best expresses the lesson in the statement?

- ① Success doesn't come overnight.
- ② Even the greatest make mistakes.
- ③ What cannot be cured must be endured.
- ④ A wise person profits from his mistakes.
- ⑤ Most people judge men only by their success.

(2005학년도 과천외고, 40번 문항)

### - 분위기·심경·태도

대화나 지문을 듣고 분위기, 화자의 심경이나 태도를 보통 문자로 제시된 선택지를 보고 푸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유형은 들려주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화자의 음성과 어조를 통해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하다는 점과, 분위기나 심경,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어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문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더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제시되는 상황 및 출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0점)

- ① bored → relieved
- ② scared → disappointed
- ③ worried → relieved
- ④ excited → disappointed
- ⑤ disappointed → annoyed

(Script)

M: Good morning. Can I help you?

W: Could you tell me where I can get the 8:50 train to Busan?

M: I'm sorry, but the 8:50 train to Busan just left.

W: Oh, no! I missed the train?

M: I'm afraid you did.

W: I don't believe it. I've got to get to my brother's wedding.

M: Calm down, please. Could you tell me when the wedding is?  
 W: It's at 1:30p.m. I must arrive at Busan station before 1 o'clock this afternoon.  
 M: Then, I think there's no problem.  
 W: Really? How can I get there before 1 o'clock?  
 M: You can take the next train. It is the fastest train in Korea, KTX. It arrives there at 12:30.

(2005년 서울 외고 14번 문항)

**- 액수·요금·숫자 묻기**

들려주는 대화를 듣고 문제에 제시된 액수, 요금, 숫자 등을 구하는 문제이다. 숫자와 관련된 문제는 외고 입시 평가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 유형으로, 해당 문제의 숫자 계산이 얼마나 단순한가의 정도에 따라 시험 난이도에 변화를 주는 유형이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한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한 복잡한 대화나 자연스럽지 못한 대화 상황 연출 등은 피해야 할 것이다.

예) 대화를 듣고, 택시로 공항까지 가는 데에 소요될 예상 시간과 요금을 고르시오. [1.5점]

- ① 40분, 20파운드                      ② 40분, 22파운드
- ③ 55분, 20파운드                      ④ 70분, 20파운드
- ⑤ 70분, 22파운드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Fast Taxi Service. May I help you?

W: Good afternoon. I need a taxi, please. I live at 55 Queen Street.

M: I'm sorry, but could you tell me the address again?

W: 55 Queen Street.

M: Where are you going?

W: To Heathrow Airport. I think I should arrive at the airport by 5:30. How long is the ride from here?

M: It will take about 40 minutes to the airport. So, we should pick you up at about

4:50. Is that all right with you?

W : Yes, that'll be fine. How much will it cost me to get to the airport?

M : That'll be twenty pounds plus 10% tax.

W : Okay. I got it.

(2005학년도 과천외고 5번 문항)

### - 적절한 결론, 요약문 완성

대화나 담화를 듣고 적절한 결론이나 마무리하는 말 혹은 요약문을 완성하는 문제 유형으로 본 분석에서는 Input&Output에 중점을 둔 듣고 말하기 유형으로 분류했다. 각 청해 지문의 내용에 따라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하지만 제시되는 선택지를 미리 읽는 등의 수험전략에 따라 수험결과에 변수가 생기므로 이와 같은 유형에서는 선택지를 음성으로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제할 필요가 있다. 요약문 완성 문제는 장문의 글을 듣고 요지를 파악하거나 요약해서 말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하며, 다음의 예처럼 세부적인 문법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의 선택지 항목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다음 강의를 듣고, 강의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5점]

Woman : Yes, you have to \_\_\_\_\_.

- ① use your car less
- ② join the UNICEF
- ③ start recycling materials
- ④ save water for our children
- ⑤ stay indoors during the day

(Script)

W : Our environment is in trouble. People and industries are polluting the air, rivers, lakes, and seas. You may think that there's nothing you can do. That's not true. In fact, there are many things you can do to preserve the environment. Here is an example. The burning of gasoline is one of the biggest sources of carbon monoxide (CO) in the atmosphere. And scientists think carbon monoxide thins the ozone layer, which protects us from the sun's rays. Then, what can you do to preserve the ozone

layer? Yes, you have to \_\_\_\_\_.

(2005학년도 과천외고 16번 문항)

예) 다음을 듣고 요약문을 완성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2점]

⇒ Envy arises out of desire for something one ( A ),  
whereas jealousy comes from fear of ( B ) something  
or someone.

(A) (B)

- ① lacks ---- losing
- ② loses ---- lacking
- ③ lacks ---- damaging
- ④ has ---- lacking
- ⑤ has ---- getting

(Script)

(2004학년도 명덕외고, 29번 문항)

#### - 전화목적 파악

대화를 듣고 전화를 건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패턴을 고려해볼 때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 상황이 빈번하므로 전화를 건 목적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되는 전화 상황이 수험자에게 얼마나 친숙한가에 따라 수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고르시오. (1.0점)

- ① 자동차 분실 신고
- ② 오후 행사 문의
- ③ 불법 주차 신고
- ④ 교통사고 신고
- ⑤ 자동차 가격 문의

(Script)

***(The telephone rings.)***

M: Jong-no Police station. May I help you?

W: Hello, my name is Susan Lee. My car was parked on Jong-no Street, but



다음의 예는 문맥상 의미 파악 문제이나, 대본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도 해당 표현만 알면 풀 수 있는 관용표현 문제에 가깝다.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도 제시된 표현의 의미만 알면 풀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예) 대화를 듣고 남자가 말한 "a long face"의 의미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1.5 점)

- ① 길쭉한 얼굴 ② 재미있는 얼굴 ③ 정직한 얼굴 ④ 우울한 얼굴 ⑤ 무표정한 얼굴

(Script)

M: Hello? LG Electronics. Can I help you?

F: Yes. This is Patty Gloria. I bought a new television set in your store a little over 2 months ago. I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it.

M: Oh, Ms. Gloria. I can remember you.

Are there any visible symptoms?

F: Yes. The newscaster is on right now, and he has a very long face on the screen.

M: Ha, ha. There are so many bad news these days. If you had to report what's happening, you'd have a long face too.

F: No kidding. I mean all the pictures shown on TV look longer than they are in normal state.

(2003학년도 서울외고 18번 문항)

## 5.2. 그림 제시형

다음은 그림을 활용한 문제 유형들이다. 대화를 듣고 그림으로 제시된 선택지에서 문제의 답을 고르는 유형, 지도나 특정 장면의 그림에서 위치나 장소를 파악하는 유형, 특정한 상황이 담긴 그림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맞는 AB 대화를 고르는 유형, 대화를 듣고 주어진 그림의 순서를 배열하는 유형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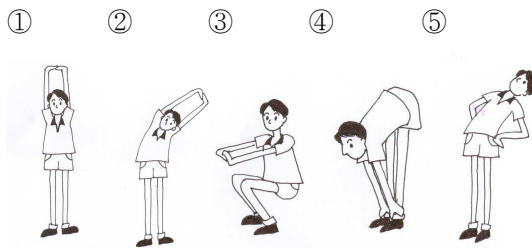
언어 세계의 특성상 시각 자료를 활용한 듣기 문제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시험지에 구현되는 시각 자료의 한계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즉, 명확

하지 못한 그림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이 오히려 듣기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림이나 삽화보다 사진 자료를 더욱 많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 그림·인물 묘사 유형

대화를 듣고 그림으로 제시된 인물에 대한 묘사나 동작을 고르는 문제이다. 동작에 대한 묘사 문제는 비교적 혼선이 없는 편이나, 특정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문제의 경우, 색깔 묘사 등의 세부적인 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유형이 될 수밖에 없다.

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취해야 할 동작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5점]



(Script)

W: Are you ready? Let's start with some stretching. Stretch your arms upward, over your head.

M: Should I hold my hands together, like this?

W: Yes, the palms should face the ceiling. Stretch them as high as you can. **[pause]** Then, bend your body to the left while holding your hands. And then bend right.

M: Hmm, this is a good way to stretch. I like it.

W: Now bend your body forward and hold your ankles. Stay this way for ten seconds without bending your knees.

M: My legs hurt. Probably it's because I'm not in good sh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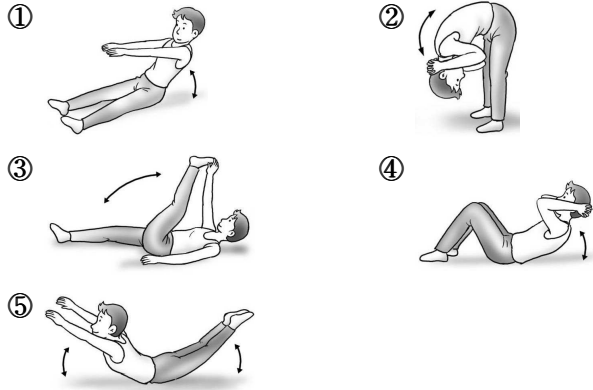
W: Now stand straight again. Put your hands on your waist and then bend your body backward. **[pause]** Repeat this three times.

M: Repeat these four steps three times?

W: Yes, that's right.

(2005학년도 명덕외고 1번 문항)

예) 다음을 듣고, 설명하고 있는 동작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1.5점]



(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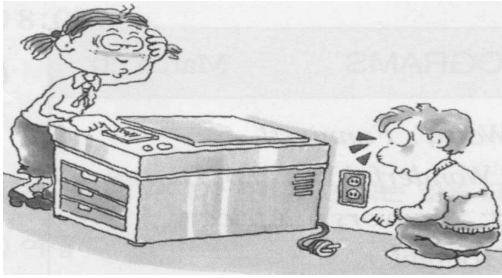
W: Good morning, viewers. Welcome to Fitness & Exercise. It's a beautiful morning to work out. Let's begin. First, lie on your back with your legs bent at the knees. Place your hands behind your head. Raise your head and shoulders about 30 degrees, but keep your lower back on the floor or mat. This will strengthen your stomach muscles. OK, that's it. Repeat five times.

(2005학년도 과천외고 6번 문항)

#### - 그림 상황에 맞는 대화, 장면·상황 파악

제시된 그림의 상황에 적합한 AB 대화를 고르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유형은 수험자가 정지된 한 장면의 그림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 문제의 예처럼 오답지의 대화를 아주 엉뚱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대화의 쌍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유형을 위해서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적인 사진 자료를 활용하거나, 상황에 맞는 대화가 아닌 장면 묘사 문제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예)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1.2점)



- ①      ②      ③      ④      ⑤

(Script)

One. W: Could you lend me any sheets?

M: I don't have any, but I have many pens.

Two. W: Tom, why in the world are you here?

M: I came here to meet Jack.

Three. W: I'm looking for a coffee machine.

M: Very good. We have a wide range of selections now.

Four. W: Could you give me a better discount for this copy machine?

M: Oh, I'm sorry I can't, but I'll ask the manager about that.

Five. W: I pressed this power button, but nothing happened.

M: Let me see. Oh! The power cord is unplugged.

(2005학년도 서울외고 23번 문항)

예) 다음 그림의 상황에 어울리는 대화를 고르시오. (1.0점)



(Script)

① M: Good afternoon. May I help you?

W: How much is this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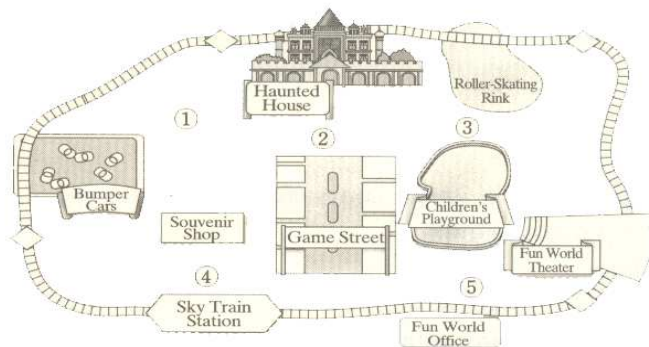
- ② M: May I have your ticket, ma'am?  
W: Here you are. What time does the flight leave?
- ③ M: Thank you for the wonderful dinner last night.  
W: Not at all. I was glad you could come.
- ④ M: May I take your order, please?  
W: I'll have a cheeseburger and some fries.
- ⑤ M: Now, Ms. James,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 I just can't sleep, doctor.

(2003학년도 대일외고, 8번 문항)

### - 지도·장소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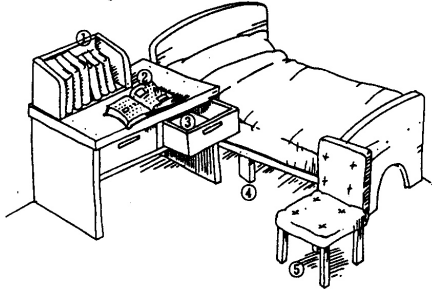
지도나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그림에서 위치나 특정 장소를 고르는 문제 유형이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그림 자료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예) 대화를 듣고, 벤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장소를 고르시오.



(2003학년도 과천외고 1번 문항)

예) 대화를 듣고, 시계가 놓여 있는 곳을 그림에서 고르시오. [2.3점]



(Script)

M: I can't remember where I put my watch, Mary. Have you seen it?

W: No, I haven't. You probably left it on your desk.

M: No, it's not there.

W: Did you look in your drawer? Maybe that's where it is.

M: Yes, I did, but it's not there, either.

W: Did you happen to look under the bed or under the chair?

M: Ah, here it is. Under the chair.

(2004학년도 대원외고 6번 문항)

- 순서 배열 유형

이야기가 있는 대화를 듣고 제시된 그림을 순서대로 적절하게 배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제시된 각 그림은 이야기의 상황 및 특징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체의 흐름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 대화를 듣고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2.5점]

(Script)

(a) (b) (c) (d) (e)



① (a) - (b) - (e) - (c) - (d)

② (b) - (e) - (c) - (d) - (a)

- ③ (c) - (a) - (b) - (e) - (d)
- ④ (d) - (a) - (b) - (e) - (c)
- ⑤ (d) - (b) - (e) - (c) - (a)

(2004학년도 명덕외고 17번 문항)

### 5.3.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

외고 입시 평가의 독해 문제는 독해 능력과 듣기 능력을 혼합하여 측정한다. 즉, 제시된 지문을 제한된 시간 내에 읽고 들려주는 질문에 선택지를 보고 답을 고르거나 질문과 선택지를 모두 들려주고 답을 고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해 목적이 우선 정해지고 나서 독해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독해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은 상당히 인위적인 문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택지가 문자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선택지를 보면 어떤 유형의 질문이 나올지 대략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도 다수 있다. 질문과 선택지 모두를 듣고 푸는 문제의 경우, 독해 목적을 확인하고 다시 지문을 보게 될 경우 수험자에게 기억의 부담을 줄 우려도 있다.

듣기형 독해문제 유형에는 글의 주제·요지 파악, 글의 제목·종류 파악, 세부정보 및 내용일치 문제, 심경·태도·분위기 파악, 글의 목적 파악, 빈 칸 완성, 요약 및 결론, 지칭·함축 추론 문제, 무관한 혹은 적절한 문장 넣기, (표)계산 문제 등이 있다. 다음은 특징적인 몇 가지 듣기형 독해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 - 심경·태도·분위기 파악 유형/ 빈칸 완성

다음의 예는 듣기형 독해 유형 중에서도, 독해 지문을 문자로 제시함과 동시에 음성으로 들려주는 유형이다. 문자와 음성으로 제시되는 지문을 파악한 후 들려주는 질문을 듣고 답을 골라야 한다. 하지만 제시되어 있는 보기의 내용만 보아도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을 고르는 것인지 눈에 뻘히 보이는 문제이다. 또한 제시되어 있는 지문 중간에 빈 칸이 있는 지문의 형태와 보기의 내용을 통해 들려주는

질문을 듣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 즉 형식만 듣기형 독해 문제이며 기존의 독해 문제 유형과 다른 없는 문제의 유형도 있어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 능력이 무엇인지 애매하다.

예)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1.8점)

Only five years old, I am fascinated by this place. The ceilings are as high as the sky and the aisles are wider than the street near my house. I cling to mommy's coattails so that she won't get lost as I walk along, admiring all the packages that line the shelves. When she stops for a moment, I let go of her to pick up an eye-catching cereal box. When I look up, to my horror, she disappears. I race up and down the aisles screaming her name at the top of my lungs. "Mommy!" Out of breath, I stop running, and a smiling lady approaches me. Then gently taking my hand, she guides me to a room at the back of the store. The friendly lady sets me down, gives me some candy, and assures me that someone will find my mother in no time. While eating the last candy, I start thinking about my mother again. It seems like hours now since we've been apart! No sooner have I finished that thought than the door swings open and there she is.

- ① frightened                      ② relieved                      ③ embarrassed  
④ disappointed                    ⑤ depressed

(2004학년도 대일외고, 19번 문항)

예) 주어진 시간에 지문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People fear that sharks will attack them while they are swimming. But people are more dangerous to sharks than sharks are to people. Thousands of sharks have been killed by humans, but only a handful of humans have been killed by sharks. Sharks do not normally hunt people. In fact, they try to stay away from humans. Humans are a threat to sharks all over the world. In Australia and South Africa, sharks are caught and killed in the nets that are supposed to protect swimmers. With people around, sharks have good reasons to be \_\_\_\_\_ .

- ①                      ②                      ③                      ④                      ⑤

(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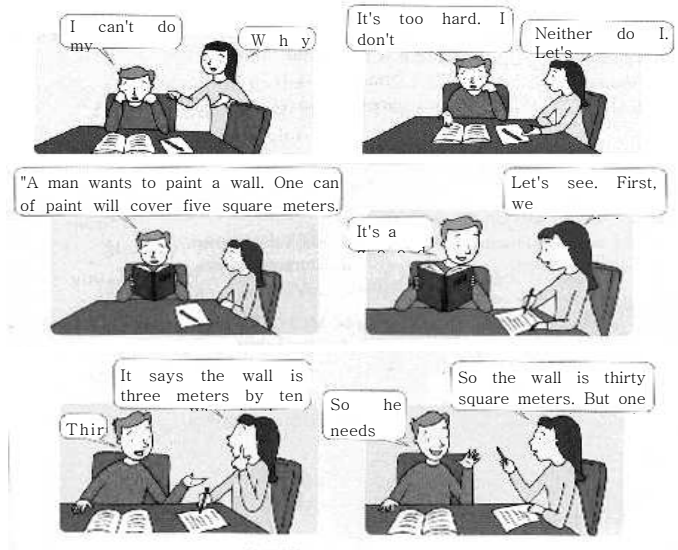
Question: What is the best word that fits into the blank?

- ① hungry      ② friendly      ③ afraid      ④ cheerful      ⑤ curious

(2004학년도 대원외고 38번 문항)

다음은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 중의 한 문제로, 문제의 형식을 다양화한 예이다. 지문의 내용은 대화체이며 만화를 통해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만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과 문제 형식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만화의 내용을 새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만화를 스캐닝하여 문제로 활용하다보니 그림이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상황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림과 말 풍선 안의 대화 내용이 읽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예) 대화를 들으면서 만화의 마지막 빈칸 (A)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점)



- ① two cans of paint    ② three cans of paint  
 ③ four cans of paint   ④ five cans of paint  
 ⑤ six cans of paint

(2004학년도 대일외고, 26번 문항)

- 글의 주제·요지 파악 유형

주어진 질문을 제한된 시간 내에 읽고, 들려주는 질문과 선택지를 듣고 글의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문제 유형이 일반적인 독해 문제 유형중의 하나이지만, 들려주는 선택지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을 고르는가가 시험 결과의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수험자의 언어 능력 중 어떤 요소를 측정하고자 하는지의 시험 목표가 불확실하다. 이는 글의 윤곽을 파악하는 제안·주장의 도 파악 유형이나 글의 종류 및 제목 파악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예) 다음 글을 읽고, 방송에서 나오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1.5점]

(50초)

Most Americans are accustomed to thinking of lie detectors as foolproof—as machines that can, without error, separate the guilty from the innocent. But in fact, lie detectors can and do make mistakes. For one thing, the people who administer the tests are not necessarily experts. Many states do not employ licensed examiners who have been trained to read and interpret the lie detector's printout. In addition, many \*subjects react to a lie detector test by becoming anxious. As a result, their bodies behave as if they were lying even when they are telling the truth.

\* subject : 피검사자

①            ②            ③            ④            ⑤

(Script)

(Question) What is the topic of the passage?

- ① advances of lie detectors
- ② blind faith in machines
- ③ problems with lie detectors
- ④ techniques of crime investigation
- ⑤ physical changes caused by lying

(2005학년도 과천외고 17번 문항)

#### - 세부정보·내용일치 유형

주어진 지문을 시간 내에 읽고 들려주는 질문과 선택지를 듣고 푸는 세부 내용 일치 문제 유형이다. 독해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을 다루는 선택지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 수

험자의 전략이나 기억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예) 다음 글을 읽고, 방송에서 나오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2점]

(40초)

Arturo Toscanini was born in Italy in 1867. He was the son of a tailor, and he began studying the cello at the age of 9. He was only 19 years old when he started his conducting career in Rio de Janeiro, Brazil. Toscanini was famous for being strict with his players. He believed that the conductor and the musicians should faithfully follow what the composer had written. He was one of the first conductors to realize that radio was an ideal means of enlarging the audience for serious music.

①            ②            ③            ④            ⑤

(Script)

(Question)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Arturo Toscanini in the passage?

- ① He was taught by his father, a famous musician.
- ② He was always very kind and gentle to his players.
- ③ At the age of 19, he started his conducting career in Brazil.
- ④ He thought the players had to follow only what the conductor intended.
- ⑤ He believed that radio prevented the audience from appreciating music.

(2005학년도 과천외고 22번 문항)

##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외고 입시 평가 방식을 분석하고 내용타당도를 재고하였다. 이는 외고 입시 평가가 앞으로 보다 타당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위해 언어 평가의 이론적 배경 및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 교육의 목적과 특징을 알아본 후 각 외국어고등학교의 기출 시험 문제를 분석했다. 분석 자료로 서울 경기 지역 5개 외국어 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2003~2005학년도) 입학시험 기출 문제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Bachman & Palmer의 의사소통 능력의 네 가지 하위 범주별 문항 분포를 분석하였다. 둘째, Bachman(1990)의 Test Method Facets(TMF) 시험 방식 양상 및 최인철의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개발 모델'에 근거해 외고 입학시험의 각 영역별 시험 구성과 비중 및 방식을 분석하고 내용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셋째, 외고 입시 평가 문항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 모델을 기준으로 외고 입학시험 문항을 분석한 결과, 텍스트 구성 능력이 64.5%, 사회언어학적 능력이 33.4%로의 비율로 출제되었으며, 문법적 능력은 전체 분석 대상의 기출 문제 중 1문항뿐이었다. 외고 입시 평가는 학교별·학년도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 평가에 비해 텍스트 구성 능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시험 방식 양상(TMF)에 근거해 외고 입시 평가의 시험 구성 및 방식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항목으로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제시 방식, 청취 횟수, 1지문 1문항 원칙(One passage one item), 청해 지문 내용, 다양한 시험방식, 듣기형 독해의 문항수 및 수험시간, 독해지문 내용, 시험유형별 문항제시, 시험방식, 지시문 및 선택지의 언어, 선택지 수 등이 있다. 먼저

영역별 시험 구성, 방식 및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지시문은 음성과 문자로 동시에 제시하며, 청해 지문이나 질문을 듣고 선택지를 문자나 이미지로 제시하는 유형과 음성으로 제시하는 유형, 청해 지문과 질문 그리고 선택지 모두를 음성으로 제시하는 유형이 있다. 듣기형 독해 문제 유형의 경우, 문자 독해-음성 질문-문자 선택지, 문자 독해-음성 질문-음성 선택지, 음성 독해-문자/음성 질문-문자/음성 선택지 등의 제시 방식이 있다.

청취 횟수는 한 번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문항에서, 청해 지문을 들려주기에 앞서 문자와 음성으로 지시문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자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들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위적인 면을 보완하고 있다. 시험방식 측면에 있어서, 삽화나 그림 혹은 사진 등을 활용한 시각적 입력을 통한 시험유형도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

청해 지문은 다양한 상황의 지문을 활용해 비교적 자연스러운 구어의 특징을 살리고 있다. 독해지문은 비전문적인 글을 포함해 다양한 지문 출처와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2003학년도 이후 듣기형 독해 유형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한정된 문항수와 전형화 된 문제 유형의 이유로 지문의 내용 또한 이전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통합교과형 문제는 시험의 취지는 좋아 보이나 영어 의사소통능력 측정이라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유형으로 시험의 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외고 입시 평가에서 취하고 있는 시험 유형에는 글의 주제·요지 파악, 글의 제목·종류 파악, 세부정보 및 내용일치 문제, 심경·태도·분위기 파악, 글의 목적 파악, 빈 칸 완성, 요약 및 결론, 지칭·함축 추론 문제, 무관한 혹은 적절한 문장 넣기, (표)계산 문제 등이 있다. 그래프나 만화를 제시하는 유형도 있다.

영역별 시험 구성, 방식 및 비중에 대한 분석에 이어, 듣기 유형별 문항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듣기 유형 59.4%, 듣고 말하기 유형이 13.5%로, 듣기형 독해문제 27.1%로, 일반 듣기 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다음으로, 외고 입시 평가의 문제 형식(Format)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제시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

분의 지시문은 음성과 문자로 동시에 제시하며, 청해 지문이나 질문을 듣고 선택지를 문자나 이미지로 제시하는 유형과 음성으로 제시하는 유형이 각각 따로 있다. 학교별로 상이하지만, 청해 지문과 질문 그리고 선택지 모두를 음성으로 제시하는 유형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수험자에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온전하게 듣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들려주는 대본은 짧은 대화뿐만 아니라 지문의 형태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고 입시 평가의 독해 문제는 순수하게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듣기 능력까지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제 형식을 살펴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독해 지문을 읽고 들려주는 질문에 문자로 제시된 선택지를 보고 답을 고르거나, 질문과 선택지를 모두 듣고 답을 고르는 방식이 있다. 학교에 따라서 문자로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음성과 동시에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듣기 지문의 발화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학교별 학년도에 따른 분당 평균 발화속도를 분석한 결과, 외고 입시 평가의 평균 발화 속도는 157wpm로 측정되었으며, 학교별로 146wpm에서 167wpm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고 입시 평가가 제대로 된 의사소통 능력 측정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원어민의 실제 말하기 속도와 가까운 발화 속도로 평가하는 속도화 시험(Speeded Test)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고 입시 평가 문항에서의 미시적 청해 능력과 거시적 청해 능력 평가의 문항 비율을 살펴보면 미시적 청해능력 측정은 41.7%이며, 거시적 청해능력 측정은 58.3%로 청해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시적 청해능력을 비교적 비중 있게 측정하고 있는 편이다.

외고 입시 평가에서 측정하고 있는 시험 유형의 종류와 각 시험 유형별 문항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듣기·듣고 말하는의 전체 20개 유형 중에서 적절한 응답 유형이 9.2%로 가장 많은 문항 비율로 출제되었으며, 세부 내용 일치 유형, 대화 장소·관계 파악 유형과 구체적 정보파악 유형, 주제·요지 파악 유형의 순으로 출제되었다. 듣기형 독해 문제의 전체 13개 유형 중에서 빈칸 완성 유형이 4.4%로 가

장 많은 문항 비율로 출제되었으며, 글의 주제·요지 파악 유형, 세부정보 및 내용 일치 유형, 심경·태도·분위기 파악, 제안·주장·의도·교훈 파악, 글의 종류 및 제목 파악 유형, 지칭·함축 추론하기, 전후문맥 및 문장삽입·배열, 글의 목적 파악, 통합교과형 문제, 요약 및 결론, 계산 문제의 순으로 출제되었다.

## VII. 외교입시평가의 개선을 위한 제언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교 입시 평가가 의사소통 언어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보다 타당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 입시 평가가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시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말이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더 큰 비중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제시 방식 측면에서, 지문과 질문, 선택지 모두를 듣고 푸는 문제의 경우 들려주는 내용의 길이가 너무 길면 순수하게 청해능력을 측정하지 못하고 자칫 수험자의 기억력 테스트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청해 평가에 있어서 전체를 듣고 푸는 이러한 문제 방식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되, 수험자의 기억부담을 주지 않도록 내용의 적절한 길이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셋째, 시험 환경과 자연스러운 언어의 특징이라는 측면에서 장차 보다 타당한 시험이 되기 위해서 청취 횟수를 현재의 한 번 들려주는 방식에서 두 번 들려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국부종속적인 성격의 문항을 국부독립적인 1지문 1문항으로 모두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해 지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타당한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자연스러운 구어의 특징을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구두 지문이 아닌 문어체에 가까운 내용을 듣고 푸는 문제가 다수 있는데, 이는 청해와 독해 능력 측정이 혼합된 다소 인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자의 제대로 된 언어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차 듣기 상황에 더 가까운 다양한 지문의 출처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외교 입시 평가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듣기형 독해문제 유형은 듣기 능력과 독해 능력을 분리해서 측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언어 능력의 혼

합된 측정이라는 요인 외에도, 제대로 된 언어 능력 측정이라는 측면에서 수험자의 수험 전략이 수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듣기형 독해 유형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통합교과형 문제 유형에 있어서도 너무 억지스러운 내용을 영어 시험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통합교과형 문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혹은 상식적인 수준의 교과 내용을 다루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선택지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긴 문제, 특히 음성으로 들려주는 선택지의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 목표하는 측정요소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덟째, 외고 입시 평가는 역량시험(Power Test)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속도화 시험(Speeded Test)이어야 한다. 따라서 외고 입시 평가의 최종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제대로 된 측정을 위해서는 평균 발화속도 이하로 평가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원어민의 실제 말하기 속도와 가깝게 녹음하여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듣기 대본을 녹음하는 환경과 더불어 보다 자연스러운 성우의 녹음에도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택지 수와 관련하여 외고 입시 평가의 5지 선다형 문제는 추측에 의한 정답률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청해력 시험 위주의 외고 입시 평가에 있어서 선택지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경우, 수험자들의 기억부담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보다 타당한 선택지 수와 관련된 연구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참 고 문 헌

- 김덕기. 1996. *영어 교육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경신. 1996. 중학교 정기고사 영어과 평가 문항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도순 외. 2001.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문음사.
- 배두분. 2000. *외국어 교육과정론*. 서울: 한국문화사.
- 성태제. 1998.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_\_\_\_\_. 2002. *현대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이완기. 2003. *영어 평가 방법론*. 서울: 문진사.
- 임백규. 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 평가 문항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민애. 2004. 고등학교 정기고사 문항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완모. 2003.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독해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정화. 2004. 고등학교 영어 정기고사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인철. 1989. Past, present & future of language testing, *영어교육*. Vol.38., No.2., 95-134.
- \_\_\_\_\_. 1993.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개발 모델. *어학연구*. Vol. 29., No.3. 383-426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 1994. Cont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a criterion-referenced English proficiency test, *영어교육*. Vol.48., No.2., 311-348.
- Austin, J.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achman, L.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man & Palmer.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designing and developing useful language test.*
- Bachman, Lyle F. 2001. Some construct validity issues in interpreting scores from performance assessments of language ability, *New Perspectives and Issues in Educational Language Policy*, Cooper, Robert L., Elana Shohamy and Joel Walters (eds.), 63-90.
- Bachman & Palmer. 2004. *언어테스팅의 설계와 개발*  
최인철, 김영규, 정향기 옮김. 서울: 범문사.
- Brown, H.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 Bailey, K.M. 1998. *Learning about language assessment: dilemmas, decisions, and directions.* Heinle & Heinle Publishers.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I*, 1-47.
- Carroll, John B. 1965.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testing for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of foreign students in Allen, & Campbell (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313-321 New York: McGraw-Hill, Inc.
- Chastain, Kenneth 1976. *Developing Second Language Skills: theory to practic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 Halliday, Michael. 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Baltimore, MD: University Park Press.
- Harris, D.P. 1969. *Test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McGraw-Hill.
-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do, R. 1964.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9

Rivers, W.M. 1968. *Teaching English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alette, R. 1977. *Modern Language Testing*. New York:  
Harcourt Brace.

Widdowson, H.G.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 Abstract

### **An Analysis of Test Methods & the Content Validity i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Entrance Exams**

Yeo, Hyo Sook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st methods and the content validity i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Entrance Exam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more valid test methods in the future.

The subject of this investigation were the last 3 years (2003~2005), entrance exams from 5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in Seoul and Kyeong-gi area.

The test has more items with textual knowledge than sociolinguistic knowledge according to the item distribution of Bachman & Palmer's 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 It should be focused on the sociolinguistic knowledge that could measure more properly the 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

Firstly, analyzed the test organizations, facets of the input and content validity based on Bachman's Test Method Facets.

Secondly, analyzed each items rate according to the listening type, whether micro-listening and macro listening, and the utterance speed in listening passages.

The average utterance speed was measured at 157 wpm, although the speed differed from school to school. This should be a speed test by

native speakers', as an actual utterance speed so that it can be more of a valid test to measure effective students' 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 Lastly, analyzed test types, features in the test and described more effective test methods to get the more valid test results.